朝鮮日報
夕刊 十七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日曜附錄)
朝光(一月一回發行)
女性(上同)
少年(上同)
幼年(上同)

藥品直輸入商 柳韓洋行 京城 上海 大連

中部戰線의兩部隊
平漢線涿州占據
遠山部隊는前面敵을壓迫
前線은牛駝鎭에進出

【天津十七日發同盟至急報】天津軍司令部午前九時發表
一、今朝我石黑及坂西兩部隊는 涿州를 占據하엿다
二、平漢線方面의 敵은 目下退却中이다

【天津十六日發同盟】平漢線方面의 ○○部隊는 周口鎭에 達하야 前面의 敵을 目下攻擊中이다 다시 遠山部隊는 寶店鎭東方五粁의 ○○○附近에서 前面의 敵을 南方으로 壓迫中이다

【永淸에서十六日同盟特派員發】十五日早曉 全部隊는 完全히 永定河를 건너 ○○部隊는 殘敵을 掃蕩하면서 晝夜兼行으로 南方으로 爆擊을 續行하야 永淸을 隔한 二粁의 地點에 方向을 轉하야 躍進又躍進 十六日午後 牛駝鎭으로 進出을 完了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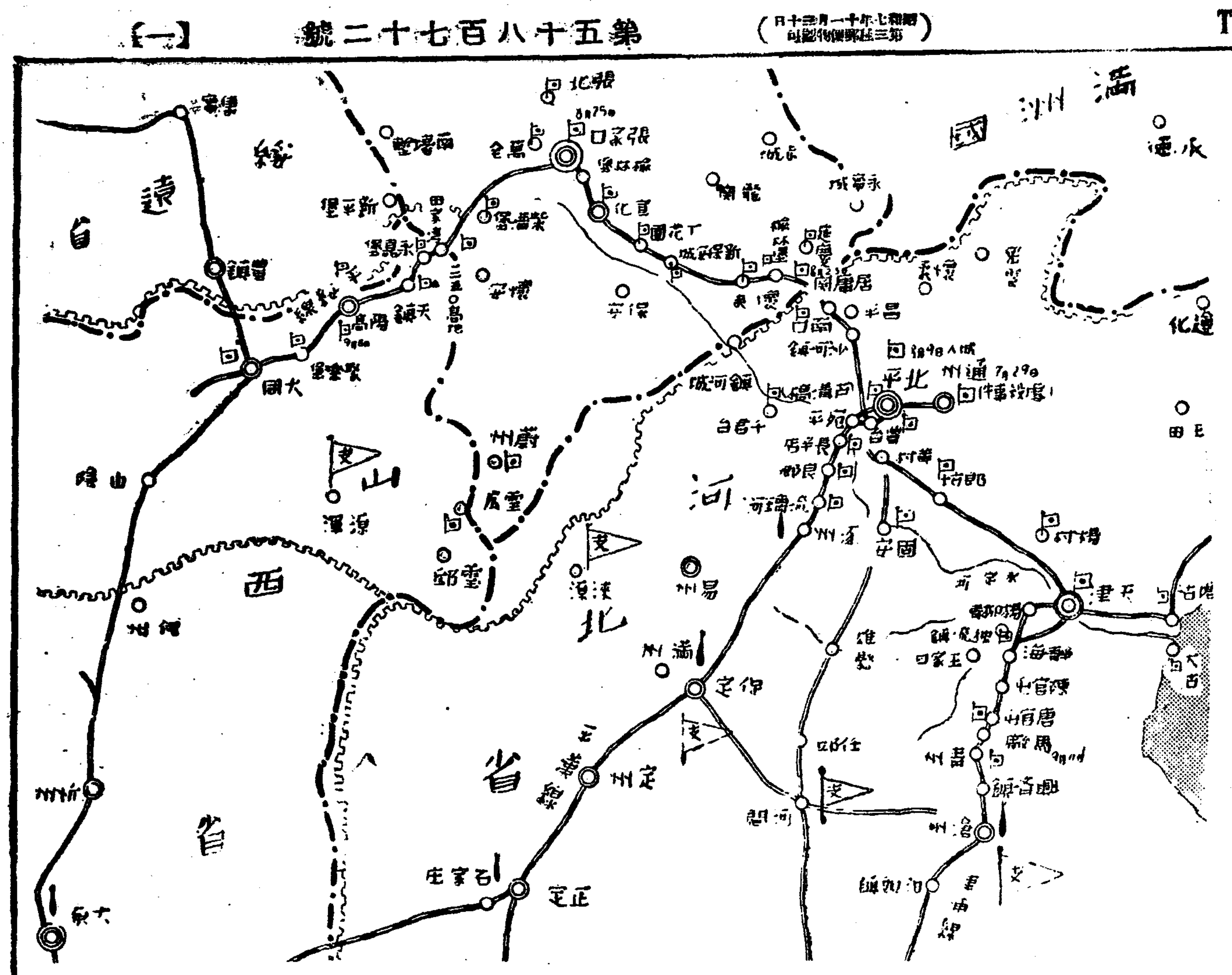
涿州는古戰場

【天津十七日發同盟】平漢線의要地涿州도 今朝石黑及坂西部隊에 使하야 占據되엿는데 同地는 直이 山西의 傅作儀가 自己軍隊를 引率하고 張學良의第三回方面軍精銳에包圍되여 約一個月에 亘하야 頑强抵抗하야 蔣軍으로하여금 拋棄케한 有名한 古戰場이다 그러나皇軍의進擊에떠는 交戰數時間後에 사리 略奪하고마럿다

山西省渾源과
河北省淶源을占領

【天津十六日發同盟】我粟飯原部隊는 山西省의 山岳地帶에 林立한 山嶮을 冒하고 殘敵을 掃蕩하면서 十六日正午 大同東南方十里의 長城線內城에 接하는 渾源에 到着하야 同地를 占領하엿다 同方面一帶는 降雪이잇고 朔風이 皮膚를 찌를듯한 嚴寒인데 我將兵의 意氣軒昂하야 다시 南下의氣勢를 示하고잇다

【北平十六日發同盟】軍司令部午後十一時發表＝察哈爾、河北、山西의 三省境方面에 잇서서의 戰況은 左와如하다
一、今十六日朝 相原部隊는 渾源、山田部隊는 張家口로부터 河北省 淶源(保定西方約二十五里)을 占領하엿다



拒馬河天嶮에依據
敵軍再三逆襲!
頑强抵抗、激戰十五時間

【天津十七日發同盟】平漢線의要地涿州도 今朝石黑及坂西部隊에

【馬駿庄十六日發同盟】西岸絶壁의 拒馬河天嶮에 依據하야 여기서一步도 不退한다고 버티고잇든 그拒馬河도 마침내 十五日午後부터 夜에亘하야 勇敢한我坂西 石黑兩部隊에依하야 驟散되엿다 渡河兩部隊는 同日夕刻부터 敵左翼部隊間에 猛烈한戰鬪를 開始하엿는데 敵은我軍渡河로 退路가 絶斷되게되므로 窮鼠必死의勢로 再三逆襲을 試하야 頑强히 抵抗하고 激戰十五時間 一分의 休暇도업시 十六日正午에 至하기까지 아직 銃砲火를 交하고잇는데 敵의 損害는 無數하다 對岸의 敵은 孫連仲 李默庵 馮占海 馮治安의四師이다

이戰鬪에서 我方에 死傷者는一人도업는데 敵은 死體數十을遺棄하고 江灣鎭方面으로遁走하엿다

森原部隊 逆襲敵을反擊

【上海十七日發同盟】十七日午前一時頃約三百의 敵은 我森原部隊의 盛家鎭附近에 猛烈히逆襲하여왓스므로 我軍은 이에徹底的으로 反擊을加하야 約三時間餘로서 이를 完全히沈默시켯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十七日定例閣議는 午前十時十分부터 首相官邸에 開催되여 近衛首相以下全閣僚出席하야 官廳에잇서서의 羅馬字統一에關한 內閣訓令案을決定하고 다음二十五、二十六日頃大阪中之島公會堂에서 열인 國民精神總動員大會에 政府를代表하야 吉野商相이 出席하기로 決定하고 또 形式에依하야서는 其他閣僚도 出席하기로하고 다시 米內海相으로부터 中南支方面의 狀況에 對하야 報告가잇섯고 十時四十分散會하얏다

殘敵匪賊化 各處에出沒

【永定에서十六日同盟特派員發】追擊行을 余가從軍한 ○○部隊는 追擊行動을開始한以來 이미四晝夜、連日早朝까지빠지는 泥濘의惡路에 惱殺되면서 必死的追擊에 또追擊을繼續하얏는데 皇軍에게 驟追되여 余然 匪賊化한 殘敵은 小部隊로되여 隨所에나타나 ○○部隊는 十五日午後 四回에亘하야 襲擊을 바덧다 그中에도 午後二時半 永淸縣西方三粁에서 襲擊하여온 約六十의敵兵은 機關銃을 盲滅法으로亂射하야 無抵抗의我等從軍記者의 約卅米前까지內迫하야 我等一同은 死를覺悟하고 應戰하엿다 이戰鬪에서 敵中에뛰여든 橋本部隊長은 右腹部에 重傷을바드면서도 이들殘敵을 헤치면서 一路南進을 繼續하고잇다

羅店鎭東南方의
最重要陣地 馬橋奪取

(上海戰線)

【羅店鎭十七日發同盟至急報】○○部隊前線의 ○○和知兩部隊는 十六日朝來 細雨를 무릅쓰고 行動을 開始하야 激戰十二時間後 前面의 最重要陣地인 馬橋(羅店鎭의東南)를 奪取하얏다

巽家宅、突家宅確保
○○으로向進!

【羅店鎭에서大鋸、小坂兩特派員十七日發同盟】敵前線의重要根據地馬橋를攻略한 ○○和知兩部隊는 日章旗를揭揚할사이도업시 得意의進擊을敢行하야 巽家宅突家宅을 機續的으로確保하고 二時間後午後八時지나서는 月浦鎭、羅店鎭을聯絡하는地點까지의線的猛進을遂하고 다시兩部隊는一步羅進○○으로向하면서 敗走하는約三千의敵에猛射를퍼부어 多大한損害를與하엿다

○○報道部發表 十六日戰況

【上海十六日發同盟】○○報道部午後十時發表
一、羅店鎭附近에서의 我○○部隊는 今朝(十六日)來當面의敵에對하야 攻擊中으로我砲兵部隊는 敵의要點에 對하야 猛射를 퍼부어서 多大의 損害를與하얏다
二、昨夜約一千의 敵兵이 我陣地前에 逆襲하야왓스나 이에 猛擊을加하야 直時擊退하엿다
三、我○○部隊는 今朝來江灣鎭北側地區에서 砲擊을加하고步兵部隊는 江灣鎭各要地에 果敢한 襲擊을하엿스며 機續部隊는 敵陣地內에 突入 敵陣地要部를 蹂躪하야 大打擊을加하엿다

北支空軍潰滅

【○○根據地에서十六日久我同盟特派員發】連日地上部隊와 協力하야 北支天地를席捲하고 敵主力陣地及後方의要地에 果敢한爆擊을敢行하고잇는 我無敵空軍은 敵空軍의 精銳를자랑하든 昔日과갓지안허서 保定 鄭州 徐州 各洛陽에 敵戰鬪機二十機가待機하고잇슬뿐으로 飛行場에 敵機影을볼수업고 我空軍의優勢에 떠는全然 손도못쓰고 我空軍은 北支全線에亘하야 完全히制空權을 掌握하고잇다

日支問題提訴處理를
諮問委員會에移牒
規約第三條第三項援用?

【쥬네브十六日發同盟至急報】聯盟理事會는 十六日午後四時半 西班牙首相호앙·네그린氏 司會下에 非公開會議를 開하고 支那代表로부터의 日支問題에 對한 提訴의 處置를 審議한結果 一九三三年設置된 二十三個國으로 成立된 諮問委員會에 이를移牒하기로 決定하엿다

(備考) 二十三個國諮問委員會

滿洲事變때에 國際聯盟에서는 日支紛爭事件을 處決하기위하야 總會와 理事會의 外에十九個國委員會를 設置하얏다 이委員會는 總會에 提出할 勸告案을 含한 總會報告案文全體를 決定하는等 聯盟의 臨時補佐機關이엿섯는데 日本이 聯盟을脫退하자 事實上 事件이 一段落되엿스므로 形式上 事件의繼續을 監視하는 意味에서 右十九個國委員會는 同年(一九三三年)二月二十三日 九個國條約國和蘭 加奈陀와 蘇聯 獨逸等四個國을 加하야 諮問委員會를 設置하기로 決定하고 二十四日總會에서 採擇되엿다。諮問委員會는 二十五日 初會議를 열고 英外相 이든氏의 提議인極東에의 武器禁輸案을 審議하는等 重大한事務를 取扱햇는데 滿洲事變의 進展과 아울러漸次 沈息하엿스나 法理上 存續하고잇다。今次 聯盟은 이委員會를 復活시켜 日支紛爭을 處決하도록 될 모양이라는데 그委員은 英佛獨 伊 파나마 諾威 波蘭 墨西哥 체코슬로바키아 白耳義 愛蘭 西班牙 콜롬비아 葡萄牙 瑞典 瑞西 土耳其의 十九國委員과 前記和蘭 加奈陀 米國 蘇聯의 四個國이다

聯盟態度冷靜
米參加與否極注目

【東京電話同盟】支那의 提訴는 一九三三年의 二十三個國諮問委員會에 附託되기로되엿는데 果然 米國이 이委員會에 參加할지 그與否의問題는 이點에集中되엿다 支那代表顧維鈞은 目下 英米佛蘇等에猛活動을 加하야 極東政策에對하야 各國이 一致的行動을 取하도록 哀訴하고잇는데 米國이二十三個國諮問委員會에 參加를拒絶하던지 或은 成果를 내지못하는境遇에는 再次 理事會에對하야 規約第十條 第十一條 第十七條 各條의適用을 要求할意向으로 보인다 그러나 聯盟의空氣는 滿洲事變當時와달리 자못冷靜하야 二十三個國諮問委員會의 復活에依하야 結局支那側에 어느程度의 體面을 保持하게되야 日支問題를 理事會及 總會의本軌道로부터 떼이려는것이므로 支那代表部의 失望과 苦慮는推測할수업는것이다

米國態度愼重

【華盛頓十六日同盟特派員發】聯盟理事會가 十六日日支問題를 二十三個國諮問委員會에 옴긴結果 米國政府가 滿洲事變當時의 例에依하야 이에參加할지 興否는 자못注目되다 헐國務長官은 十六日新聞記者團과의 定例會見에서 아직聯盟으로부터 招請을바들지아니하엿스나 招請에接하는境遇의 處置에 對하야서는 愼重히考慮하여야할터이다 新聞記者團으로부터 米國은 參加할터인가안할터인가고 質問함에對하야 헐國務長官은 言明을 避하엿스나 結局米國은 聯盟의日支問題討議에는 어데까지던지 介入치안는立場을 取할것이라고 觀測된다

問題의『위치타』號
支那向飛機遂陸揚

【산페드로十六日發同盟】支那向 베랑카機戰鬪機十數臺를 積載한 問題의 위치타號는 十六日산페드로港前面에 碇泊하엿다 同船은 政府의 海事委員會로부터 借用하고잇는 파이오니야汽船會社에서는 루즈벨트大統領의 聲明에조차 베랑카機를 陸揚하기로 決定하고 波止場人夫十二名은三百噸의 貨로 위치타號에 이르러 飛行機陸揚作業을 開始하얏다 右飛行機의 處置는 不明이나 支那는米國의 民間船舶或은外國船을 使用할것이라고한다

제퍼슨號出帆

【샤틀十六日發同盟】달러汽船푸레스렌트·제퍼슨號 乘組員一同은 同船이 日支戰鬪의 危險地帶로 向하는것을 理由로 過般來會社側에對하야 特別手當을 要求하고 잇섯는바 十六日에 至하야 會社側과 妥協이 成立되여 제퍼슨號는 豫定보다 三日 늦게샤틀港을出帆하기로되엿다 제퍼슨號는 船客十一名貨物八千噸을滿載하고잇는데 香港만寄航하고上海其他支那海港은 原則으로寄港하지안흘것을會社當局은 言明하엿다

南總督 小磯軍司令官訪問

南總督은 十七日午前十時龍山官邸에 小磯朝鮮軍司令官을 訪問하고 北支及上海에잇서서의 皇軍의活躍情況을 詳細히聽取한後 時局에關하야 여러가지 懇談을遂하고 同十時半辭去하엿다

大野總監 南鮮視察

大野政務總監은 天谷秘書官을 帶同하고 來十九日午後十一時十分京城驛發列車로 全南忠南北視察에 赴하야 二十日大田、木浦、松汀里、光州 二十一日光州發松汀里、論山、扶餘、公州、鳥致院 二十二日 淸州發 鳥致院을 經하야 午後七時十五分京城驛着列車로 歸京豫定이다

松澤外務部長渡滿

松澤總督府外務部長은 新任人事를 兼하야 鮮滿間의 諸問題를 協議하기爲하야 來十九日午後三時五十分京城驛發列車로 渡滿 二十五日歸任豫定이다

軍艦과海軍航空隊
敵陣地를爆擊
江灣에는夜襲戰展開

【上海十六日發同盟】第○艦隊報道班午後八時發表
一、海軍航空隊는 十六日低雲이 덥혓스므로 江南의 上空으로부터 劉家行 江灣鎭 浦東 閘北 各方面의 敵陣地를 爆擊하야 多大한 戰果를 어덧다
一、浦東에는 依然히 支那軍隊가殘駐하야 我江上艦艇을 射擊함으로 軍艦○○은 即時砲擊하야이를 擊退하엿다

【上海十七日發同盟至急報】今曉零時半頃江灣方面에서 일어난銃聲은 夜深함을 따라서 益益猛烈하야 同一時十五分頃부터 砲聲도加하야 激烈한 夜襲戰이 展開되엿는데 자욱한 夜霧를 뚤코울리는 戰線一帶를 震撼하야 ○擊을 行하고잇다

米內海相報告內容

【東京電話同盟】米內海相은 中南支方面의狀況에 關하야 大體如左히 報告하엿다

◀中南支方面
南京의 佛伊兩國大使館은 揚子江船上에옴가고 南京政府에서는 官吏에 對하야 一割乃至五割의減俸을 行하는同時에 本俸의半額에達하는 軍事公債의 强制購入을 시키고잇다

◀青島方面
青島의空氣는 稍히 平穩하야 邦人은아직 十名을 殘留하며 잇다

◀上海方面
上海의物資는 稍히 缺乏하야 物價騰貴로 社會不安을 招來하고잇다 失業者는 三四十萬에達하엿다 一般으로支那側의 高壓的統制로空氣는不穩하다 虹口側은數日前부터 時時銃聲이 들릴뿐으로 在留日本人은安心하고잇스며 商店도開店하는사람이만흐며 日本字新聞의三社가모다 再刊하엿다 支那新聞도 敗戰뉴-스를揭載하기始作하엿다

八面鋒

◇今年은 雨順風調하야 五穀이豐登。
◇米도 粟도 大豆도 果實도 棉花도。
◇戰爭나는해 豐年이 진다하얏스니 녯말이 바로마젓거니와。
◇錢慌으로 穀價는 非騰、戰閣로 菾果輸出이 杜塞。
◇秋夕도 되얏스나 실컷먹고 含哺鼓腹이나할가。
◇滿洲로 移民을 간다고 準備를 다햇드니 突然히 鮮滿拓殖에서 中止한다는 通牒이 江原道에 왓다고。
◇가야 곳 一、二年에 시원한것도 업것지만 갈 準備를 햇다 주저안즈면 過冬은 奈何。
◇唐津 合南普校 設立에 朴炳烈氏가 四萬圓을 喜捐햇다고。
◇敎育界를 爲하야 致賀할일。

人事·集會

◀金用淳氏(金剛製業所主)十八日午後二時四十分京城驛發佐世保에出張

廣東을再空爆!
猛烈한空中戰展開

【香港十七日發同盟】十六日午後七時十分我○○機○○機는 廣東市上空에 나타나 東方郊外에잇는 天河飛行場에 大爆擊을 敢行하엿는데 爆彈은 敵의格納庫에 命中되어 黑煙이 衝天하며 飛行機數臺를爆擊하엿다 또 東南方就砲工場에 對하여도 猛烈한爆擊을 加하야 火災를이르키엿다 支那飛行隊는 戰鬪機數臺를派하야 猛烈한 空中戰을 展開하엿스나 我方의 猛擊에 擊退되엿스며 我方은 目的을達하고 無事히歸還하엿다

總督認可 補缺生募集(學則三錢要)
京城第一自動車學校
◎新學期開始(補缺募集)十月五日◎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學則要三錢切手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 電話本五、三三六〇番 振替京城七一一八八番

第84回生徒募集
京城高等簿記學院(財團)
◎新學期開始(補缺募集)十月五日◎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學則要三錢切手
◎最近校舍新築大擴張(元實踐簿記專修學院改稱)(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電本五、三三六〇番)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新學期開始(補缺募集)十月五日晝夜 ◎學則要三錢切手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等學校入學受驗準備)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電本五、三三六〇番)

小資本工業案內
三錢切手送하시면 小資本大成功의 簡易化粧品一切洗濯石鹸各種目用品을工業化할수잇는工業案內書를送呈
京城府長沙町一二九 泰昌工業所(原料商)

街路燈數二分一은 今後點燈도無妨

—警察署長의認定에從하야—

常時管制程度明示

【京城要地防衛司令部發表】현재 경성부내에 실시중인 상시관제(常時管制)중인 등화관제(燈火管制)에 대하야 다음과가티 그 정도를 결정하야 오는이십이일 오후여섯시부터실시하기로되엿다

▲일반등화(一般燈火)중에서옥외등화(屋外燈火)는

1, 가로등 가운데서 경계관제(警戒管制)에 당하야 남겨둘것은 경계관제때와 갓다

2, 이남겨두는 전등이외의 가로등이문등(門燈)을포함함은 중앙관제(中央管制)로써 소등할수잇는것은 평시대로 불을켤수잇고 끄고켜는 장치가잇는것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증하는때에평소의 가로등수의 이분지일이내로 점등시킬수잇다 다만 령란등류(鈴蘭燈類)의 점등시간은자정까지로 한다

켜고끄는 장치가 업는것은전부끄고 광고 간판 장식등(裝飾燈)류도끄고 표지등류(標識燈類)는 평소대로 켤수잇다 옥외작업등(屋外作業燈)은 평소대로 켤수잇고 기타의 옥외등류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증하는때에는 켜게한다

그러고 옥내등화(屋內燈火)는 평소대로켤 수잇다

▲특수등화(特殊燈火)와 화염(火焰)은 평소대로의 장치로서 조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증하야 켜게하는 가로등과 표지등과 옥외작업등은 불빗가리우는 장치를하여야된다

聖書"한글"採用을 聖書公會에獻議

長老敎總會에서決議

【大邱】이십육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륙일(십륙일)의 회의석상에서 만사변을 두고총회가 열릴때마다 숙제로되여오든 한글 철자법채용문제는 일반회원간에 충분한 인식을 주게되여 마참내 한글철자법대로 성경(聖經)및 찬송가(讚頌歌)를 인쇄하도록 조선성서공회(朝鮮聖書公會)에 헌의(獻議)하기로 가결하고 오랫동안 문제되여오든 경성로회(京城老會)내의 분규사건은 이번총회에서 위원다섯사람을 파송하야 쌍방을 화해케해서 원만히 합동하도록 가결되엿다는데 화해방법에 잇서서는 경중로회(京中老會)측은 적극신앙단(積極信仰團)에 가입아니할것을 성명케하며 불법으로 경성로회를 탈퇴하고 경중로회를 조직한것은 불가한것인즉 경성로회에 대하야 사과하는동시에 경성로회에서는 그들의종래처벌을 취소케하리라한다

續續獻金

愛國金釵會서

부내 서린정(瑞麟町)에잇는애국금차회(愛國金釵會)에는 지난 십오일 제십사회로 다음과가튼 헌금자가 잇섯다

▲金釵一本 愛國金釵會 ▲金一百圓 同 ▲同 同 ▲金五十圓 進明同窓會 ▲金十圓 羅啟河(故金瑞圭氏未亡人) ▲金三圓 宋今璇 ▲金二圓 崔內淑 ▲同 方信榮 ▲現品 金釵二本 換算金一百七十圓 ▲現金 一百六十七圓 累計 現品 金釵十六本 나、銀釵一本 다、金製耳搔三本 라、金製指環一個 右換算金 一千八百二十七圓 現金 三千四百十七圓

儒林代表三氏

國防獻金가지고上京

조선유림의 후예로 현재유림(儒林)의거두인 경상북도안동(慶北安東)에잇는 도산서원(陶山書院)리충호(李忠鎬)(六三)、병산서원(屛山書院)류승우(柳承佑)(六二)、림천서원(臨川書院)김중섭(金重燮)(六〇)등삼씨는 이번지나사변의 총후동지에 일단의노력을 더하는 남총독(南總督)에게 치사와 출정장병의 가정을위문코자 십칠일아침에 입경하야 남총독과 소기군사령관(小磯軍司令官)을방문하얏다 그리고 그들삼씨는련합으로 대구헌병대(大邱憲兵隊)

爽秋·運動界盛事

全朝鮮綜合競技大會

來廿二日籠球는徽文普校球場서

九、十月中順次開幕

스포—츠의가을을마지하야 온갓운동경기의 총결산을지을 제십칠회 전조선종합경기대회(全朝鮮綜合競技大會)는 조선체육회 주최로 구월과 시월중에 경성운동장 휘문보교구장 종로청년회관마당 또는 조선일보사대강당에서 연속적으로 거행할터인바 이미수상경기는 마치고 제이차로 오는 이십이일부터 삼일간 일반과중등의 롱구(籠球)선수권대회를 열기로 되엿다

구장은 경성운동장에서 거행할 예정이든바 일반롱구팬의 편의를도웁기위하야 안국정(安國町)휘문보통학교운동장 특설코—트에서 행하기로되엿다 이롱구대회의 신청기도 명십팔일까지로 박두하야 중등부와 일반부에서신청이 답지하고잇다 그리고대망의 전문교결승전인 보전과연전의대전은 시월구일에 거행하기로되엿스며 각종목의 경기일정과 및신청기일은 다음과갓다

▲籠球=九月二十二、二十三、二十四의三日間 徽文普通學校『코—트』(安國町)(區別)中學部、專門部、實業部(申請期限)九月十八日까지(抽籤日)九月十八日(參加金)中等部二圓 專門、實業部各五圓

▲排球=九月二十三日 京城運動場(申請期)九月十八日까지(參加金)每團體二圓

▲拳鬪=十一月一、二、三의三日間朝鮮日報社講堂(區別)一般部(申請期)九月二十八日까지(計體量)九月二十九日(參加金)五十錢

▲씨름=十月九日(區別)中等部(申請期)十月五日(抽籤日)十月六日(參加金)三十錢

▲卓球=十月十日 府民館中講堂(區別)一般部(申請期)十月七日(抽籤日)十月八日(參加金)五十錢

▲力道=十月十六、七、八의三日間 朝鮮日報社講堂(區別)一般部(申請期)十月十四日(體計量)十月十五日(參加金)五十錢

▲庭球=十月二十三、四의 二日間 京城運動場(區別)中等 專門(申請期)十月二十日(抽籤日)十月二十日(參加金)中等三圓 專門五圓

▲野球=十月二十四日 京城球場(區別)一般部(申請期)十月二十日(抽籤日)十月二十日(參加金)中等三圓 專門五圓

▲陸上=十月三十日 京城運動場(區別)一般 中等(鐵定)(申請期)十月二十五日(參加金)每人五十錢

▲蹴球=十月三十、三十一日과十一月一、二、三의五日間京城運動場(區別)中等 專門 一般(申請期)十月二十五日(抽籤日)十月二十五日(參加金)中等三圓 專門五圓

▲武道=十月二十三、四兩日間

(詳細追後發表)

秋夕省墓者爲해 臨時뻐스運轉

오는 십팔、십구량일간은 음력추석(秋夕)명절이라 성묘하려가는사람이 만흘터이므로 경전(京電)에서는 례년에 의하야 미아리묘지(彌阿里墓地)로 성묘하려가는이를 위하야 경전뻐스를 림시운전하기로 되엿다 운전구간은 돈암정(敦岩町)에서 미아리묘지입구까지라하며 운전시간은 오전여덟시부터 오후여섯시까지라한다 료금은 그구간에 한하야 편도(片道)오전이라한다

列車乘客의 주머니터는자

함남북청군(咸南北靑郡)출생 전과일범 방순봉(方順奉)(二六)이는 십사일 오후경성역상등대합실에서 조을고잇는향객의 주머니돈 팔원구십전을 훔친것을 비롯하야 경성 부산(釜山)간렬차속에서절도한돈삼십칠원을가지고 경성역부근을 배회하다가 십오일 본정서원에게 붓잡혓다

列車輸送의生牛 二十五頭가斃死

釜山으로輸送中大邱驛서發見

시내서사헌정(西四軒町)촌상황태랑(村上晃太郎)씨는 십오일오후일곱시오십분에 청량리역을떠나는 제오백오십칠렬차로 부산진(釜山鎭)역전 근등건차(近藤健次)에게로 일본내지로갈소마흔마리를 실어보냇는데 도중에서 스물다섯마리가 죽어잇는것을대구역에서 발견하고 큰소동을이르켯다고한다 원인은조사중이나 그화차는 뚜껑잇는화차로 밤차 당시에 환기장치도 충분히하엿는데 어쩐까닭인지알수업스나혹은전염병을 이르켜서 죽은것이 아닌가 추측되는데 근래에보기드문사고이라한다

拿捕된漁船들은 蘇聯서裁判에廻附

問題의完全解決까지는 相當한時日이所要

함경북도서수라(咸北西水羅)근해 연해주(沿海洲)일대에서"소련"관헌에게나포된조선 어선사십여척과 총독부경비선 조풍환(朝風丸)에대한 문제는 외무성(外務省)당국의 엄중한항의로 조풍환만은 석방한다는 정식통고가 십륙일 외무성을거처 총독부에도달하얏거니와 나머지잇는어선들은아직 소식이묘연하다 총독부에드러온 정보에의하면 조풍환은 관선이므로 석방을통고하얏스나 나포중의어선은 소련측 재판에부처서 심리중이므로 상당한 시일을 요할모양이라는데 그추이는 자못주목을 끌게되엿다

佐藤書記官이 現地로出發

漁船事件調査次로

연해주방면에잇는 소련관헌의 어선불법나포사건에대하야 외무성으로부터 파견된구아국(歐亞局)좌등(佐藤)서기관은 작십륙일 총독부에서 외무부、경무국、식산국 국과 중요협의를마친후 십륙일 밤열한시차로 수산과강전(岡田)기수와함께 현지ㅅ찰의길을떠낫다 좌등서기관은 청진서총독부 감시선조풍환을타고 문제의연해주압바다까지 시찰하고 이십일청진발선편으로 귀임할예정인바 작십륙일총독부에서 협의한 사항을보면

一、조풍환의석방에대하야는 가급적 빨리실현되도록 극력노력할것

一、방선(邦船)어업에관하야 소련관헌의 압박은 북양어업에잇서서도 이가튼례가 만흠으로 연해주방면의정황에대하야 밀접한련락을 취하고정보교환을할것

一、자래도연해주방면어업에대하야는 총독부와 농림성수산국사이에 아모런련락이업섯스나 금후는 긴밀한련락을취할것등의 대책을 협의한모양이로 소련측정보를 따르면조풍환은 량일중에석방지령이 내릴것이라고 보고잇스나 아직이편에는 아모공전이업다고한다

鐵道局旗制定

철도국에서는 진즉부터 철도국기(局旗)를 제정하자는 의론이 잇섯든바 이번에 드듸여 실현되기로 되야 십팔일에 그제정식(制定式)을거행하기로 되엿다 이날은아침에 길전(吉田)국장이하각과(課)대표자렬석으로 조선신궁에 국기의 제정봉고제(奉告祭)를 집행한뒤 식순에 따라식을 거행하기로 되엿다 국기는 두종류로 맨드럿는데 각소(所)장(場)등에도 배부하기로되엿다

OO運動計畫한다고 投書로誣告

金錢關係로含怨者가

시내서대문서 고등계에 수일전에 정체모를 투서한장이 들어왓는데 그내용인즉 서대문서관내 어떤정총대(町總代) 리모(李某)등수명이 교북정(橋北町)현저정(峴底町)방면에서 조선〇〇운동의 불온한 회책을 진행중이라는 리상한 사실이 적혀잇서서 그고등계에서는 곳긴장하야 그내막을조사한결과 투서를한 장본인은 시내종로 륙정목 이백십삼번지에사는 무직자황진연(黃晋淵)(三〇)이라는 사람으로〇〇불온운동운운은 멀정한 거짓말로써 투서내용의 인물들과더부러 수년전에게(契)를 모앗다가 금전관계로 서로 상극이되어오던중 그사람을 중상하야 함정에너흘 계획으로 전기와가튼투서를 한것이 무고죄(誣告罪)로 판명되여 오히려 자기가 무고죄(誣告罪)로 검속되여 십칠일 검사국으로 묵기어갓다

每年九月十八日을 鐵道局記念日로

철도국에서는 구월십팔일을철도국기념일로정하고 이날오전열시부터 철도국우회관(局友會館)에서 철도본국원을비롯하야 전철도선종사원의 대표자렬석으로 철도기념일의 제정식을 엄숙히 거행하기로되엿다 구월십팔일은 조선철도창설일(創設日)로 즉명치삼십이년의 이날에 로량진(鷺梁津) 인천(仁川)사이에 비로소 철도가 개통된날이라한다 금번은 시국관계로 간단히 제정식만을거행하기로되엿다

金基煥의 舊惡續續綻露

背後의共犯도判明

기보=십사일오후네시경 관철정(貫鐵町)뒤골목에서 종로서형사를 넉아웃히고 동서에 검거되든 왕년의 "링"의왕자 김기환(金基煥)(三七)은 취조에따라 그의구악이 탄로되고잇는데 그는지난해팔월 형무소를나오자 오늘까지 "밤거리의신사"로 가진행악을 거듭하엿스며 그의배후에는 공범까지 이십명잇는것이 판명되여 동서에서는 계속취조중이다

白晝長安大路에 山猪一頭가突入

市內東四軒町派出所아페서

工事人夫들이撲殺

백주길일흔 산도야지(猪)장안돌입결행(長安突入決行)=십칠일정오경 본정서관내 동사헌정(東四軒町)파출소아페 돌연산도야지 한마리가 나타나서 일대소동을이르킨후 부근에서일하는 이십여명 도로공사인부에게포위되여 고전(苦戰)삼십분남어지드듸여 박살을당하고말엇다

이산도야지는 남산(南山)으로부터 길을잘못드러 그리로나려온것갓다고 하는데 기리가석자 가웃이나 되며 세살가량먹엇스리라고한다 그리고이리저리 쫏기든 산도야지와 인부 리룡복(李龍福)(三)이가 개천속에서최후결전을 하얏는데 리는왼손을 물려서 치료일주간을 요할상처를입엇다

(사진은 잡어노흔 산되지와 잡은인부들)

楊州街道에 二人團强盜

老人을脅迫코奪金

십사일저녁 일곱시반경 양주군로해면하계리(楊州郡蘆海面下溪里)백오십사번지 홍우혁(洪祐赫)(?)이란로인이 집으로 도라가든길에 동면월계리(月溪里)제방에다잇슬때 삼십전후되는청년두명이나타나 한자는 로인의 멱살을잡고 돈을내라고한즉 로인은 파라 가지고 옷갑을 팔십여원 어치 산 남어지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도라가든길이엿고범인들은 경성시내로 잠복한듯 하다는 양주서(楊州署)의 수배에의하야 시내각서에서는 범인을엄탐중이며 혹은그전날밤 동대문밧전당포를 습격한자들이 군부(郡部)로 피신하엿다가 범행한것이 아닌가생각된다

滿洲事變記念日 各種行事는廢止

십팔일은 만주사변(滿洲事變)발생륙주년에 해당하는 기념일인데 시국관계로 일체의 기념행사는 중지하기로하고 경성부윤은 십팔일에 부내각정총대에게 집집마다 국기를 달도록하라는 통첩을 발하엿다한다

上海에虎列刺 去—益—猖—獗

各處關門을嚴重警戒

십륙일 전란의상해(上海)로부터 총독부경무국에 드러온정보에의하면 상해의 호렬자(虎列刺)는 점점창궐하야 환자사백명을 돌파하얏다는데 그곳서귀환하는 피난민은 전부엄중한소독과 예방주사를맛고오나 만일을 염려하야 인천(仁川)부산(釜山)진남포(鎭南浦)등 상해와 선박의련락이 잇는각항구에는 더욱 엄중한 검역진을치고 방역에로력중이라한다

一吹必殺

京仁等地連絡 國際阿片密輸團

新義州署員來仁活動

【仁川】신의주(新義州)와 인천(仁川)을 근거로삼고 북지(北支)방면을 무대로한 아편등국제밀수단이 체포되얏다 지난십륙일오전 칠시십분차로 신의주경찰서원이 인천까지와서 부내송현정(松峴町)백번지 리모의집을수색한결과 생아편십여관(貫)(시가사천여원)을 압수하고김모(金某)(三〇)외에 삼인을체포하야 인천서에 인치한후 그중김모만을대동하고 범죄사실을 조사키위하야동대문(東大門)서로갓다는 대사실의일체를 비밀에부치고잇스나 이제탐문한바에의하면 그들은 신의주와 인천에근거를두고 련락을취한후 이를인천서선박을통하야 지나방면에 밀수하얏든 사실로써 얼마전신의주에잇든 근거가 경찰의손에 소탕되얏든관계로 전후사실이 발로되자 동서원은 그즉시 상경하야 영등포(永登浦)와인천에서 범인전부를체포하얏스나 중에는지나방면에서 보내준아편을 판매하야 그대금삼천여원을 횡령하고 다라난자도 잇서동사건의 내용은 밀조밀수횡령사기 등을집한대규모의 밀수단이라한다

스포—츠摘

普專對延專의 蹴球豫想

明日京城運動場서

今씨—즌의 序幕戰으로 蹴都蹴球팬의 視聽을 集中케하는 全普專과 全延專의 決戰은 明十八日 午後一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하기로되엿다 今春의 對戰에 延專이 選手負傷으로말미아마 不足한 멤버—로 끗까지 奮鬪하다가 一對零으로 惜敗한後 雪辱의 意氣衝天하게 此一戰에 臨하는 延專은 코—치 李容珍氏指導아래 鄭龍洙 李奉鎬 李裕澄 韋惠德等의 名將들이 充分한 練習을싸어 自信滿滿하다

連勝을꿈꾸는 普專은 지난 여름 全日本代表合宿練習에 參與하얏든 裴宗鎬、朴奎禎兩君을中心으로 地方에서 康基鉉君等이 上京하야 猛練習을 거듭하고잇다 그런데 兩軍陣容을보면 今春에 比하야 多少變動이잇는듯하야 戰前의 豫想을 許치안는다 이날에 보여줄 새로운戰法으로 歐羅巴에서 盛行하는『스리빽씨스템』과『따불포—메—슌』의 圓滑한『컴비네이슌』이 우리蹴球界의 본보기가될것으로 實力을 超越한 兩軍의對戰은 五分五分으로 勝敗의 歸趨를 헤아리기 어렵다 다만그르로 兩軍이모다 찬된運動精神을 發揮하야 今春과가튼 汚點은또다시 남기지안키를 바라마지안는다

京師籠球東京에

東京에서 來二十三日부터 連四日間열리는 全日本中等校籠球選手權大會에 出場하는 京師籠球團一行九名은 監督日高歡氏引率下에 十六日午前十時五分 京城驛發列車로 發程하엿는데 一行의 陣容은 다음과갓다

▲主將=文榮漢 ▲選手=黃正烈 鄭鎬容 劉熙世 金振八 羅五福 宮坦 川本 木本

天氣豫報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明日은개엿다 잠간흐리며 京畿全區도以上과갓다

昨日最高	二六度五
同 最低	一七度〇
今朝最低	一七度二
今日正午	二五度一

補血·强壯·强精에는

판토크린

(花鹿茸精血)

元賣發入輸直 共生藥業株式會社 京城 電話光化門二四五七·二七四五 振替京城二二〇〇番

文房具·事務用品 在庫豊富 大都賣

東光堂文具卸部

京城府寬勳洞四〇番 電話光化門三七〇 振替京城16121番

卸目錄要三錢切手

毛絲萬能手編機

一、本機ハ今日益益增加シツツアル毛絲編物ヲ爲スニ普通手編ノ六倍乃至十倍ノ能率ヲ有シ、而シテ使用簡便價格低廉デアルカラ各家庭ニ於ケルミシン機ノ如ク普及性ヲ有ス

一、本機ハ本會ニ於テ檢査ノ結果他ノ手編機ニ比シ如何ナル編方ヲモ爲スコトガ出來ル

一、本機ノ取扱店ヲ一道ニ一ケ所若シクハ二ケ所設置ス希望者ハ申出ラレタシ

朝鮮副業協會 京城南大門 電話本局二九六〇番 振替口座京城九三七〇番

朝鮮日報 大邱支局 電話一四四三番

赤玉固腸丸本舖 樂天堂製藥株式會社 京城府旭町一丁目

宮中秘藥

世界市場을相對로中國秘藥飛躍的進出!

借力虎骨丸 一劑服用으로 天下無敵!

秦始皇도秘藏愛用튼强筋借力劑 滿洲國特許局第一五九三號

借力虎骨丸

果然証文殺到大好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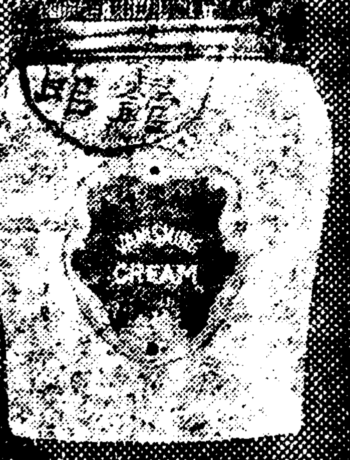
藥價 大借一劑百圓、中借一劑五十圓、小借一劑三十圓

現在기운보다 다섯갑절을 확실히 더나고 骨格이 장대하여지고 大補元氣하고 만병을 통치한다 名藥에 國境이 업도다 男女老幼를不問하고 쓰시라! 天下에떨치는 借力虎骨丸의 神效幽妙한 靈效는 現中國政界財界의 巨頭가 經驗愛用하는 事實이 如實히 證明하고잇다

謹告 北支의風雲急告하오나아시는바와가치滿洲國內의治安은日本內地와同一하야秋毫도不安이無하오니安心하시고注文服藥하시오

滿洲國新京特別市興安大路卿雲街角 無限公司 亞細亞大藥房 電話二一四四一·振替新京九九〇番

ウテナ(雪印)バニシングクリーム
우데나 바니싱 크림



秋節의 벼꺼름 막고 살결 어여쁜 健康한 若肌 기루는 整肌料

★맑게개인大氣에、紫外線의直射는 盛해저서 惡性의벼꺼름을招來하고、氣候의變化는 살거칠게되는 原因이되므로、爽陽한秋節도一面살결에對해서는 可恐할季節입니다。이것을防止하고、潑剌한若肌를만드는대는 우데나바니싱크림이 가장効果的입니다!!

- 벼꺼름防止에
- 살거침豫防에
- 淡化粧下에

우데나바니싱 크림은 純脂肪性이므로 爽快한感觸으로살결에먹어드러、皮膚深部까지、獨特한 美肌素를 滲透식혀、皮膚組織을 更新하야、여드름、부름의原因을 除去하고、잔주름과 느러짐을 解消식혀서 化粧이 잘되는若肌를 培養합니다

定價 三五錢 六五錢

잘먹고·잘페이는 **鮮麗な粉白粉**

★우데나가루白粉은粒子에獨特한硏究를 加햇스므로 化粧밀리는 原因을막고 明澄度의노픈粒子는 近代的인 感覺을살려서個性美를發揮식힙니다。

定價 三〇錢 五五錢

明朗한八色
白色·肌色·내추랄 健康色·濃肌色·부룬 오ー클一號·二號

ウテナ粉白粉
우데나

12.9—7.1

ウテナ化粧料本舖・久保政吉商店

女性 朝鮮日報社出版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十月號定價二十錢(送料二錢)

名女流獨身生活打診記
李淑鍾氏 徐恩淑氏 車美理士氏

男武裝의女勇士(李适亂時) 車相瓚

支那의女人軍隊……春城

朝鮮八道婚姻儀式巡禮(咸鏡道篇) 李軒求

공든男性界의慨嘆할傾向 宋今璇

家政과男便의無誠意 沈恩淑

피아니스트金元福論(女流人物評) 李應淑

누에치고베도짜드니(鄕土有情記) 金午男

參謀長이된酒母(그夫人의一生) 申鼎言

海外女性犯罪綺譚 金汶植

女性是非——崔載瑞

숫장수의妻—李善熙

空想一題—金晉燮

달의傳說 鷺山抄

京城各女學校女先生評判記 (5) 女高篇 貞信篇

滄波上의敎訓 (女性讀本) 李殷相

畫報
十月의表情 最新科學的美容體操法 秋夜長(砧·書讀)
그나라와그衣裳(英·米·佛·獨·伊·印度·比律賓·暹羅·等)
朝鮮映畫 沈淸

中篇小說 거리의牧歌 李孝石
短篇小說 女人의旅裝 李七亭
短篇小說 춤추는男便 金南天
中篇小說 停車場近處 蔡萬植

詩 바다 白石
歌 별·薔薇 尹泰雄

初秋의化粧法—吳淑根

婦人女學生寢服—任貞爀

朝鮮女性과家族制度 高凰京

戰爭과美人計 李鍾模

가을의表情
코스모스——李相昊
丹楓——白石
落葉——李源朝
갈꼿(蘆花)——李秉珏
들菊花——咸大勳
기러기——盧子泳
귀뜨람이——盧天命

■內外珍聞 ■主婦備忘帖 ■女性界消息 ■알어둡시다 ■十月메모 ■웃지맙시다

表紙 金奎澤 插畫 鄭玄雄 扉畫、插畫 崔根培 ☆

朝鮮女流文學選集 女流文人十四家執筆 定價一圓 送料九錢

그의自叙傳 李光洙著 定價一圓三十錢 送料九錢

世界傑作童話集 文壇十五家執筆 定價八十錢 送料六錢

東洋劇場
九月十八日부터(五日間) 朝鮮聲樂研究會 公演 ▲上演劇本金容承脚色 唱劇 春香傳 六幕十二場
淸風과明月만으로도오히려재음수업는新秋의滋興은東洋劇場藝術에서차즈소서
▲東劇特輯三題▼
劇團靑春座 凱旋公演 十八、十九、二十(三日間夜間半)於府民館 ▲上演劇本▼ 崔獨鵑脚色 新版「長恨夢」四幕八場
九月山人作「八字업는出世」二幕
二十一日부터(夜間半)於東洋劇場 ▲上演劇本▼ 林仙圭作「悲戀草」四幕六場
南宮春作「孝子製造法」一幕
二十一日부터(晝間半)漢城劵番演藝部公演 同(夜間半)劇團靑春座公演

◇九月十六日부터三日間 每日二回 낮一時 밤七時四十分 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三大映畫上映‖
◇米國인터내슈낼特作全發聲 戰爭名畫 二重世界
◇에드나프로덕숀特作全發聲 O·M·하리도 노ー라·바링그主演 現代連續大活劇 鐵의爪 前篇
◇極東키네마甲陽特作映畫 時代活劇 美男狩 前編(花嫁掠奪篇)
鐵五曼陀羅 劍豪 雲井龍之介主演
次週十九日映畫(舊八月秋夕特別興行) 四大映畫陣—키ー트獸人襲破 最後의偵察機 戰慄의爆音 鐵의爪 後篇 一時上映

光武劇場
往十里町
九月十六日晝間부터四日間大公開 最高峰名畫鑑賞週間 每日晝夜二回公演 一回十二時、二回二時三十分 (續映)三回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 一階上十五錢 階下十錢
京城撮影所超特作朝鮮語全發聲 監督…李銘雨氏 春香傳 共演 朴齊行、李鍾哲、韓一松、金蓮實、文藝峰、朴雲峰、
松竹蒲田特作畫 監督…陶山密氏 現代名畫 眞白き富士の根 主演 及川道子、上山草人、小島光代
차프링푸로덕숀特作全發聲日本語版 原作、監督…차리·차프링氏 喜活劇 깃도 主演…차리、차프링氏작키구강氏

第一劇場
話光一七五五番

黃金座
13日より 19日まで
阪東妻三郎入社第一回作品
時代劇 戀山彥 11·20 2·55 6·40
ニュース 支那事變 12·55 4·40 8·15
現代劇 悅ちゃん乘り出す 1·05 4·50 8·25
各席全部 大人59錢 學生小人30錢

若 劇
十五日ヨリ五日間 晝夜二回 大人五〇錢 學生小人三〇錢
1 大每支那事變ニュース
2 世界の歌姬 11·40 4·20 9·20
3 熱風 1·35 6·20
4 僕は誰だ 2·35 7·35
(二) R·K·O·作 リリイ·ポンス主演 (三) 佛パテナタン作 マルセルシヤンタル主演 (四) P·C·L·作品 橫山エンタツ花菱アチヤコ主演

家庭

"음식맛이란건 무엇이아라낼까?"

산해진미도입속에잇는동안 『맛』과 미각신경이야기

우리몸에서 음식의맛을아는부분이 혓바닥인줄로만아시는분도 만켓지만 실상인즉 웃턱의좌우편 깁숙한곳과 목젓근처에도 음식맛을 아는부분이 잇습니다。혀를 내밀고보면제그바닥에 털이난것처럼 웬통 오를도틀한것이잇는데 그중간에 여기저기 그보다좀더큰 뻘건것이섞겨잇습니다。그리고 혓바닥저속과 목구녕저속에도 고리처럼 둥글둥글하게 도든것이잇는데 그것에는 추근(球根)처럼 형상이된 조고만한 미뢰(味蕾)라는것이 상피층(上皮層)에 파무처잇는데 바그로내민그것을 미문(味門)이라고합니다。

맛을 깨닷는신경은 이속에 잇습니다。따라서 입안에든 음식이 침에녹아 이리로흘러드러가 거기에서 미각신경을 자극해서 처음으로맛을알게됩니다。그럼으로 침에녹지안은것은 맛을알수업게되는것입니다

엇재거나 맛이란것은 복잡한것이라 옛날부터 단맛 쓴맛 매운맛 신맛 짠맛…이 다섯가지로 나누어잇지만이외에는 아리다는 맛도잇습니다。

그런데 고초처럼 알알하게 매운것과 개자처럼 매운것이라든지 햇감처럼 떨분것과 무궃처럼 아리다든지하는것은 미각(味覺)이라기보다 지각(知覺)이라고해야오를것입니다。또 신것과 짠것은 미각이외에 혓바닥의지각신경까지도 자극하야 양쪽의힘으로 강한감각을이르키는것입니다。

그러나 나종의 두가지종류만은 [illegible] 지각을 자극하기까지에 이르지안어 단지 미각신경만 활동하게되며 더구나 도일한신경이 맛의 전부를 잡아끄는 것이아니니까 명확히 그분담이 결정되어잇서 그소재위치까지도 나누어저 잇습니다。

즉 단맛을 예민하게 깨닷는것은 혀요、쓴맛을예민하게깨닷는것은 혀의 밋둥 신맛은 혀의양편부분에서주로 깨닷게되고 단지 짠맛만은 감부분이고루 평등으로 깨닷게됩니다。그리고어느정도로 열버질때까지맛을깨닷게되는가하는것을 조사한바에의하면 이것역시 맛의종류에따라 크게차이가잇습니다。

맛중에 가장예민한것은쓴맛인데 물에 구십만분지일의 대황『에끼쓰』를타도벌서 쓴맛을 알수잇다합니다

그리고 그외의것을 본다면

▼모다풀에『키니ー네』는 사십만분지일

▼류산은 십만분지일

▼소곰은 사백이십륙분지일

▼단맛은 제일둔평이니 사탕은 이백분지일에 겨우그단맛을알게됩니다 이것은아마단것을보통사람이 가장질겨하는편이라 익숙해진탓으로볼수잇겟고 쓴맛은 누구나 안조와하는 까닭이려허에익숙하지안은까닭에 그가치 [illegible]다。그증거로는 미각도 수련에따라 물맛을 아라내고 물의산지까지아라낸 다니까요。또그다음에는 음식을 입에너어서 비로소 맛을깨닷게되기까지의 시간으로말하면 소곰종류가 제일빨라서 불과일초의 오분지일도 못걸립니다。(○、一七秒)

그리고는 단맛、신맛、쓴맛의순서인데 키니ー네 (금계랍)의맛이 제일늣게 알게됩니다(○、二五八秒)

그대신맛이 다업서지는순서도 이와가트니 늣게맛을깨닷게 되는것일수록 늣게업서집니다。소위 뒤맛이라는것이 이것입니다。또나아가서음식물의 온도도 미감을제한하는것인데 십도로부터 삼십도까지가 가장적당하며 그이상더웁거나 그이하로차도미감은 잘활동을못합니다。

『등화가친!』 가을과조명

전기스텐드도정들때

서늘한 가을이되엿스니 등불을 친해야겟다는 옛말이잇습니다 이말은 고금동서를 물론하야변경할수업시 조흔말이며 책을벗삼는 사람의격언(格言)이안일수업습니다

옛날선비들은 눈비체 책을빗처가면서 글을 읽엇고 기롱호랑에 눈의위생이엇더케되는지도 모르고 책만보앗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등이란것이 잇서서 도회지는 더말할것도업고 웬만한촌이면 의례히 전등을켜게되엇습니다。

그런데따라서 눈의위생을 여간 중대시하지안흘수업스며 가튼 전등을켜다 사치와호강을겸하고위생에 조혼 전기스탠드라는것을 가지게되는것입니다。

금년가을 전기스탠드는 엇던것들이 나왓나 하고 백화점엘 가보앗습니다。

전기스탠드로서 어린아히들이 질겨서 쓸만치 채색을하고이상스런 물형을새여넌것으로 일원팔십전이면 살수잇스며 키가훨신크고 아조점잔한 크림빗츠로된시기가삼원오십전입니다。

그리고 서재의 노하서 그럴듯한 풍취를 도우고시비어시점잔한것은 종후모양으로 생긴것인데 주석으로 만든것이 구원삼십전입니다。

제일비싼것은 십팔원짜리인데 스탠드가운데 조그만한 시계가 달엿습니다

이시계는 보통시계점에서사면 이원오십전가량은 될까보아요

이것은 조금모양이 이상야릇하고 새맛이잇는데 친구의딸이나 누이동생조혼에 선사로 사주고 십두군요。

그밧게도 여러종류가 잇스나 그것을 일일히 말할수업고 요사히 등화단제에 쓸전등투경이 새로나왓는데 조히로 만든것은 십전이며 등조람등가튼 양철통울가지고 아조그럴듯하게 만든것이잇는데 이것은 쓰기가편리하게되엿습되다 갑은 이십팔전이라나요 그리고 아조전등『다마』가 위에는 까맛케칠이되여서 아래만빗치도록 된것이잇는데 이것은 삼십전입니다。

꼿드로 전기핑선과 눈의위생의관계로보아서 간접조명(間接照明)이라던지 직접조명(直接照明)이란것을 이야기하겟습니다

간접조명이란것은 갓당가튼데달린 큰샨데리ー아를보면 흔히전기『다마』는 안에들고 거테사기로 만든 뭉직한것『다마』가 더펴잇서서 둘비티 은은하게 비치는것입니다。직접조명은 보통전기켜노트시 직접『다마』에서 비처오는것을 말하는것인데 위생상으로보아 간접조명이래야되며 요새전등으로는 이것이 대류행입니다

전기스탠드카바ー라하야 특경빗갈에따라 눈의 위생이좌우되는수도적지안습니다。

카바빗갈은 푸른빗갈이 제일조습니다。울긋불긋한것은 장식용으로 조흘지몰라도 서재에서 쓸것이못됩니다。

中編小說豫告

人生特急

春城 盧子泳 作
木朗 崔根培 書

독자여러분께 칭찬을받든김말봉씨의 장편소설『찔레꼿』은 아프로 멀지안허 끗나게되는데 그다음으로는 춘성노자영(春城盧子泳)씨의 중편소설『인생특급』을 여러분께 선사키로되엿습니다。조선에 신문학이드러오고 얼마되지안는때 아름다운서정시와 산문으로 그당시독자를 열광시키든 춘성이 그뒤에 붓을던지고 오래동안 사색(思索)을 싸호며 인생의 기괴를파보랴고 애쓰던 나머지에 지금여러분의 아페나타날『인생특급』을 어덧습니다。

작품의일단은 작자의말에서 짐작하실것이며 여기에신진화가 목랑최근배(木朗崔根培)씨의 잡화는 작품을더욱빗내게할것을 기약하야 마지안습니다 이소설은 구월하순『찔레꼿』이 끗나는 대로 곳여러분의등잔미테 펴처지기시작할것입니다。

作者의말

인생의 행로(行路)는 피와 땀의 연쇄(連鎖)라고 합니다。그러나 나는 이소설에서 그 피와 땀을 다시 꿈과 힘과 아름다움으로 채색(彩色)하고 거기에 어떤 영웅(英雄)적 행진을 가미코저합니다。그러나 이소설은 순수(純粹)한 예술적향취보다도 누구나 읽어서 흥미를 늣기도록 통속적(通俗的)으로 쓴다는것을 말하여둡니다。

그러나 작자의 이 생각을 어느정도까지 지면우에 그려노흘는지 이것은 작자로서 가장 우려하는바입니다。원래재조업는 자이나 힘것은 노력하겟습니다。

(사진=작자로자영씨 (左)최근배 (右)씨)

아이들위하야 어느편이조흔가?

◇『랜드셀』과메는가방 ◆가죽혁대와『질ㅅ방』

유치원에 단이는 어린이나 보통학교아이들의 메고단이는『란도셀』과 가방과의 어느편이 아이들의 위생에 조흘지 이것은 여러분이가장알고시퍼하실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린아이들의 양복입을때 매는혁대와 질빵은 어느편이위생에조흔지알어보기로합시다

란도셀과가방을 두고본다면 어린아히의자세를 위해서는 란도셀이조흡니다。그리고 가방을 가지고단이면학교에갈때는 오른편억개에걸치고갓다가 도라올때는왼편억개에 걸치도록 서로밧구어가면서 메고단이지안코는 면안됩니다。

한쪽에만메고 단이면 오래동안습관이되여서 어느사이에 척주(脊柱)가 회어저서 자라나는데 큰방해가되는것입니다。

질빵과혁대로 몰때엔혁대가 어린이의위생에 조흡니다。

그다지 대단치는안흐나질빵은 억개를 눌르며 가슴운동을 방해하는것입니다。

더욱 질빵을 너무올려매고다니면 오래동안에 어느듯 척주가 아프로 빼두러지게되는것입니다。

이러케 허리가 아프로 꾸부러지면 내장하수증(內臟下垂症)을 이르키는수가잇습니다。

그러므로 질빵은 어린아이의 발육에는 대단히조치못한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도 필요하긴하나 질빵을 건다해서 곳 신체에 해로울것가트면 그신세도 여간약하지 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데 큰영향을 밧지안토록 평소에 어린이의 신체를 튼튼케하지안호면 안될것입니다。

깨여진화분으로 멋쟁이화병

여름동안에쓰던화분가운데 깨여젓거나금이난것은업습니까 이러케깨여진것을그냥버리는것은 앗가운일입니다。

그러지마시고 금이난한쪽만을 베여버리고남어지반쪽을 나무판자에 못을박고철사로잡아매여서 바닥에는못으로 지탕을시키면아조멋진 꼿병이될수잇습니다 안깨여저말이것이 그럿습니다 보지기보담 낫다는말이잇더니 정화병보다 훨신새로운맛이나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것을 거려놋는데를 말슴하면 뜰압기둥가튼데가 너무쓸쓸하지안습니까 그러니는 이것을다려노호면 아조경치를도울것입니다。그리하야 그화병에는 될수잇는대로 매해나올 것이조흔 풀꼿을가저다 살리는 것이조흡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이난화분을 반쪽쪼개여 낼때가문제입니다 조곰 날이 굵은 톱이면 잘되나 그러한것이 집안에 업슬때에는 못으로 금을지워서 여러번 문아르면 하여집니다 어지간히금이 파여젓다고 생각되거든 장돌로 처보십시요 갈쭉가치 떠러지는것입니다

그다음 이러케끈흔 화병은 끈흔자옥이 꺼칠어서자미가업스니 다시 돌가튼데 문질너갈면 됩니다。

이것을 거러노흘 나무때기는 그냥 쓰기보담 한번 불에 끄러서 거테부튼끄름과 탄자옥을 수세미로 문질너 가지고 나무결을 내는것이 훨신 멋잇서보입니다

히스테리의약은

물리면 죽는다는 독사뱀의독이 되려 히스테리ー에특효약이된다는 자미잇는학설을 미국보스톤시에열린 의과대학석상에서 『로이·우팡』박사가 발표햇다 합니다。박사의말을드르면 부인들이 중년되면 히스『테리ー』에 걸릴뿐더러심하면 발광까지되는 수가잇는데 현대의학으로 엇절수업는것이나나 는『고뿌라』뱀의독을써서쉬흔 사람중마흔여들사람을고첫다」 이러케장담한답니다 엇재건주목할만한 학설이라고들합니다。

치차리우

냉수욕

수동이는 날마다
아츰이면 냉수로 목
욕을 하는대 겨울에
는감기 한번 안들
고 또추위도 안타
드라。
나도 래일부터 어머
니보고 일죽깨달래
서 냉수욕을해야징
(글쓴사람 박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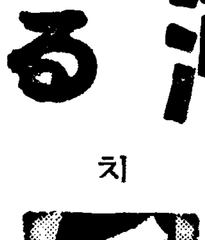
淸白端麗한베리간

お肌に張る健康美

살결에넘치는

수염깍근뒤에!

一滴、면도독을 防止하야……살결을생생하게緊張시킨다……라고、近代的男性이레ー도후ー도를絕讚하고잇는것은、殺菌、收斂의强力한科學的作用이 잇기때문입니다!



살빗을 히고健康케!

一滴、잔수름、느러짐을解消식혀……살적살빗을히게한다……라고레ー도후ー도는女性들에게大好評입니다 淸淨히젊게하는優秀한科學的效果가잇기때문입니다!

다이야몬드 뉴ー스
偏食을하시면살결이속히老衰해서느리지게되오니注意하시기바랍니다

父의면도뒤에! 母의그윽한化粧에! 兄의出勤前에! 姉의健康한若肌에!

レートフード

레ー도후ー도

一家一瓶

戰爭文學 (六)

蒙古兵亂과詩

湖岩

蒙寇의 侵略은當時世界의 最大恐怖기되야마는 高麗에도 空前의關鍵이 되엇다。蒙寇는 暴風가티 高宗의高麗에 來襲한새 高麗末期의 武力으로는 到底히 그네의銳鋒을 꺾을수업섯다。

高宗十八年(西一二三一)부터 侵略을 시작한蒙寇는 以後三十年동안 六回의入寇가잇서兵連禍結하야 國土가荒廢에 도라가고말엇다。

蒙寇當時는 武臣崔氏의專政하던 期間이라 崔瑀ㅣ 高宗을脅迫하야 國都를 江華에 옴기고 또人民을 海島와山城에 옴겨서 長期의抗戰을 策動하엿다。

그리다가 崔沆(瑀의孫)의 政權이 沒落하야 미처서야 비로소 方針이 一變하야 太子倎을 蒙古에 볼모로 보내여 和約이 成立하게되엿다。

지금 蒙寇의 侵入한 經路를 살피면 第一回는 高宗十八年이니 이때는 西北沿路諸城이 陷落되고 오즉 龜州(龜城) 慈州(慈山)二城은 力戰善守하야 得完하엿스며 그러나 安北(安州)이 失守되매 敵의 先鋒은 長驅하야 平州(平山)를 屠戮하고 國都(開城)를 肉迫하므로 麗廷에서 不得已 淮安公鋌을 安北敵의 總營에 보내여 그元帥撒禮塔과 和約을 締定하엿다。第二回는 高宗十九年이니 이때는 발서 遷都한 以後라 蒙寇는 江都의 天險을 攻略하기 困難하야 다만 出陸을 促迫하엿더니 그元帥撒禮塔이 我에게 被殺함에 미처서는 蒙兵은 潰散하엿다。第三回는 高宗廿二年이니 元史를 보면 拔都의 西征과 同時에 東侵한것으로 西北과 東北의 兩界를 넘어 高麗에 侵入하게된 蒙將唐古는 五年동안 全國을 蹂躪하야 그勢가 아주 猛烈하엿고 第四回는 高宗卅四年 阿毋侃의 入寇이오 第五回는 高宗卅八年 也窟의 入寇이오 第六回는 高宗四十一年 車羅大의 入寇이니 車羅大의 入寇이야말로 六年을 두고 殺戮劫掠放火의 온갓 殘忍暴虐을 恣行하야 慘禍가 가장酷烈하엿다。그러나 이를最後侵掠으로 高宗四十六年(西一二五九)에 崔氏의沒落과함께 三十年에 亘하던 禍亂이 告終하고 江都城郭을 毁撤하고말엇다。李奎報(高宗朝)는 그 宋府中에 毁城歌를 을픈一篇이 잇스니 거기 갈오되

高山巖巖城在嶺。洋洋漢水繞成池。有臣名將誰臨敵、食足兵甲利。胡不堅守反毁城。公然築卒遣塡塞。白日驚嚎山鬼。咄咄百雉攀地倒。下民不禁悲戚悲。(下略十七句)

將湖는 第一二句에 먼저 天險의 地利를 들고 第三四句에 朴犀의 力戰善守를 稱하고 第五六句에 兵食이 俱足하야 넉넉히 守城할수잇슴에 不拘하고 毁城하엿슴은 不可하다고 强調한後 第七句로 第十句까지는 山鬼가 놀라고 下民이 슬퍼하는 毁城의慘痛한場面을 그리엿다。

한사람의言語學徒로서 文壇人에向한提議 (一)

洪起文

近來 우리文壇人들은 朝鮮語에對하야 漸次로 關心을 놉히어가고잇는바 言語學徒의 한사람인 나로서는 한편으로 때느진 느낌을가짐에 不拘코 何如든 반가운 **現象**이요 기꺼운 傾向임에 틀림이업다고 생각한다。勿論 한集團이 共同으로 使用하는 한言語가 그로써 藝術을 造成한다는 特權아래 멧멧사람에게 壟斷되거나專斷될수는 업는일이로되 언제나 한言語를 向上發展시키는데 잇서 그러한 特權을가진 사람들의 巨大한힘을 無視해서는 안될것이다。그러나 意外로도 朝鮮語에對한 우리文壇人들의 關心은 아직 關心거리에 끄치어 一步 더 그以上의 進出을 보지못하는것은 적지안한 遺憾이다。그에關한 위선 한가지의例로서 綴字法의 統一을 必要로 말하고 또어떠한 綴字法統一案에 同意까지 한분中에도 實際 그들 自身이 使用하는綴字法은 **全然** 統一치못하고 잇는이가 드믈지 안하며 標準語의 制定을 必要로말하고 또 어떠한 標準語制定에 參加까지 한분中에도 實際그들 自身은그制定의原案과 反對되는 사투리를쓰는이가 적지안타。그것을그들個人의 言行不一致로만 돌리어버리량이면 나역시 구태나過責할것이 업겟지만은 이로써朝鮮語에向한 文壇人의 關心을지질할수잇스매 나로서 不得己한 摘發을 마지 못하는바다 그統一된 綴字法과 그 制定된 標準語가 果然 合理的이나 아니냐는 다음問題로 돌리고 自己自身이 어떠한 主見으로나 거긔 贊同하엿스니 모르는것은 다시 배호고 아는것은 더 **正確**히 다지어서 몸소 그 規範이 되야주지안할수가 업는일이다。지금의 文壇人들은 그大多數가 朝鮮語에對하야 如前히 無意識코無責任한 그대로다。그러케 되야서는 表面에 나타나는 關心도어느點으로 一種의 附和雷同이아닌가고까지 疑心밧기를 免치못하게되엿다。그런데綴字法統一에도 나아와서 조곰 標準語制定에도힘서서 조치만서도 朝鮮語에對한 文壇人의 努力은 오즉 그로써 다할것이 아니다。아니 文壇人 本來의 使命으로 보아서는 그보담도 더크고 더 무거운 무엇이 잇지 안할까고 推察된다。그 무엇이란 大體어떠한것일까? 그것을 한번 糾明해 보는것도 반듯이 無意味한 일만은 아니지 안한가? 그러나 **文壇**人과 言語學徒의關係를 먼저 規定치 안코서는 나로서의 그 糾明이 넘우나 주저넘게 되기쉬운만큼 나는 먼저 그關係를 規定치안할수가 업다。그것은 오즉나의 謙遜한 態度를 表示키爲함만이 아니라 나의論證을 좀더 미덤즉하게 하고자함입니다 한편으로 文壇人에잇서 言語는 畫家에잇서 펜트와가티 그藝術을 造成시키는 한 手段에지나지못하나言語學者에잇서 言語는 그의 本質과및 모든性能을 研究하는바의 對象이된다。그便으로본다면 배를가리한 吳越은아닐망정 血緣의 寸數는 따지기 어렵다。다른한편으로 言語는 한個의 歷史를 가지고 한個의集團性을 가지기때문으로 **畫家**가 펜트를 다르듯 色대로 서거서 自由롭게色彩를 創造할수도 업는同時에 言語藝術인 文學에 잇서 言語의 性能도 當然히 言語學徒의 한 研究題目이 되지 안할수 업다。그便으로 본다면 文壇人이 言語學徒의 助力을 請하지 안할수 업고 言語學徒가 文壇人의 活動을 無關心하게 對할수가업서서 互相의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잇는것이다。

勿論 녯날의 比較言語學에서는文學과言語의 關係를比較的閑却한것이 事實이나 이미 오늘날의 言語學은 決코 自己의 領域을 拋棄코자 안는다。거기서 言語學徒인 나로서 文壇에 向한 提議가 一定한 制限을 가지는것은 勿論이어니와 그 提議者로의 資格도 獲得하게 된다。

詩와道德과生活

『렌의哀歌』『石榴』『分水嶺』等 (4)

崔載瑞

어디서 호개짓는 소리
서리찬 갈밧처럼 어수선타
길허가는 大陸의 밤──
○
손톱을 물어뜻다가도 살그먼
이 눈을감는
제비가튼 少女야
少女야
눈감은 양볼에 울ㅅ정이 돗
친다
그럴때마다 네머리에 떠돌
悲劇의群像을 알고십다
○
지금 오고가는 네마음이
[illegible]에 흥얼리는 江가를해매
는가
비새는 토막에 누더이를 쓰
고안젓나 줄우려안젓나
○
馭人의 말모리 고함
눈나저 지나는 말모리 고함
배지런 채ㅅ죽 소리
젓가슴을 감어 치는가
너의 노래가 漁夫의 자장가
처럼 애조롭다
너는 어느凶作村이 보낸 어
린犧牲者나
○
길허가는 大陸의 밤──
未久에 먼동은 트려니 햇살
이 퍼려니
성가스런 鄕愁를 버리자
제비가튼 少女야
少女야……

이詩人은 무엇보다도 生活의 詩人이다。生活을 詩에까지 끄러올리려는 人生派詩의意味에잇서서가아니라 生活을 生活대로 生活에서 우러나는말로 노래한다는意味에잇서서이다 그는 세리멘타리즘이나(히스테리ㅣ에 빠짐업시) 悲痛을 우서버리려는 屈强한 精神을 或은 無感動한 表情밋에 埋葬하야 버리래는 『스토이지 시즘』을 보여준다。

딸말는 얼굴에
소곰이 싸락싸락도친 나를
공사장 갓까운 술속에서 만
나거든
내손을 쥐지말라
만약 내손을 쥐드래도
옛처럼 네손처럼 부드럽지못
한 리유를 그리유를 묻지말
어다오
○
주름잡힌 이마에
石膏처럼 창백한 불만이 그
윽한나를 거리의 뒷골목에서
만나거든
먹엇느냐고 물ㅅ지말라
굶엇느냐고 더욱 물ㅅ지말고
꿈가튼 이야기는 이야기의 한
마디도 나의沈默에 侵入하지
말어다오
○
메인양 씨드러저
턱을고이고 안즌 나를
어둑한 廢家의廻廊에서 만나
거든 울지마라
웃지도말라
너는 平凡한表情을 힘써 직
혀야겟고 내가 자살하지안는
리유를
그리유를 물ㅅ지말어다오

滿洲는 누가생각하야도 朝鮮文學 特히詩에 조흔材料가될듯십다。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이러타할 小說이나 詩가 나타나지안엇다。李庸岳氏가 어렷슬때부터의 體驗도 도움이되엿겟지만 이方面의 만흔詩를 남겨주엇다는것은 大端히 기뿐일이다 더욱히 移民文學을쓰는 作家가자칫하면 빠지기쉬운 誇張과 感傷에對하야서도 相當히 心的防備를 보혀줌은 든든한일이다。다만 그의詩가 沈鬱한敗北的인半面에 잇서서만 優秀하고一步 快活한 或은明朗한 建設과 美의世界로 드러가면 弱點을暴露함은 前途는되면서도 저윽히 섭섭한일이다。그리고 思索的觀念的詩도 試作하얏스나 擧皆가 失敗라고 나는본다。作者는 이點을 조심할뜻하다。

科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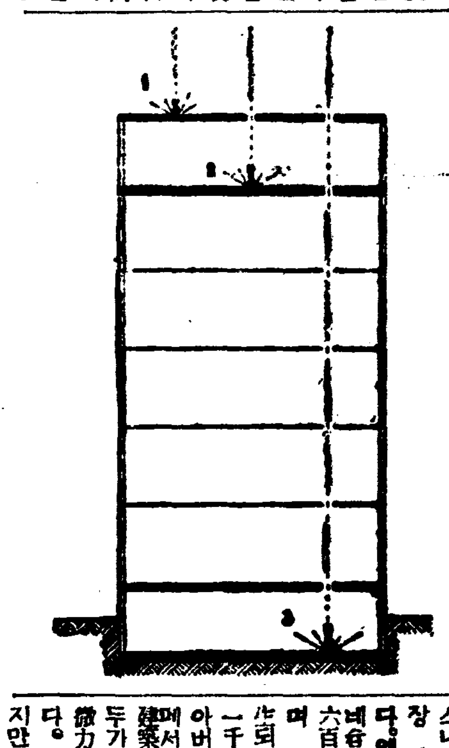
特別警戒를要하는 燒…夷…彈 ①

閔正默

空襲에 使用되는 武器는 勿論 投下爆彈이지만은 投下爆彈에도 普通爆彈、毒瓦斯彈、燒夷彈等이 잇다。그中의 燒夷彈은 一種의 放火彈으로서 그이름과가티 火災를 이리키는 것인데 空襲을 當하는 都市에 對하야는 제일 警戒를 要할바의 對敵이다。본래 戰爭에 불을 쓰는 것은 卽 火攻은 東西洋을 通하야 오래전부터 시작되엿슬것이겟지만은 그 불이 化學的으로가장 猛烈한 勢力을 가진것이요 또 그 불이 空中에 떨어진다는데 잇서 古代의 火攻을막아 내는것과는 同一의 比가아니다。더구나 우리네 家屋이나 其他 一般建築物은 大槪 木材로 되야 잇는이만큼 一層더거기對한 防禦의 方法을 講究치 하지 안할수 업는것이다。

世界大戰以後 軍用飛行機가發達됨에 따라서 投下燒夷彈으로서의 燒夷彈이 急激히 發達되야왓다。지금 쓰는 燒夷彈에는 投下 燒夷彈과 散布 燒夷彈의 두種類가 잇서서 前者는 一定한目標를 照準하고 投下하는데 쓰고 後者는 一般住宅이나 農作物에 向하야 精密히 照準할것도업시 散彈을 上空으로부터 散布하는데 쓴다。그런데燒夷彈도 輕量일수록 撒布하기에 便宜한것은 事實이다。그래서 散布 燒夷彈이라고해서는 重量不過 百그람밧게 안되는것도잇다고한다。燒夷彈의 成分과 構造는 各國의文獻을 살피어보건대白燐 或은黃燐을 타ㅣ르油와混合해서 燐光에 재우기도 하고 또或 알미늄의 粉末과 酸化鐵의 混合物인 텔미트를 主劑로 쓰기도 하는등 各가지로 考案되고 잇스나 아모래도 엘렉트론彈이가장 많이 使用되리라고들 말한다。엘렉트론은 約四十%의 마그네슘을 含有한 輕金屬으로서 約六百度의 熱을 加한즉 한번이나며 燃燒되는데 그때거기서 發生되는 熱은 二千度以上으로서 一千三百度 乃至一千五百度에녹아버리는 教鋼과가튼것도 그아메서問題가되지안는다는것이다。建築物에 對한 燒夷彈의 作用은 두가지로 볼수잇스니 하나는 侵徹力이요 또하나는 燒夷作用이다。燒夷作用은 勿論 그本質이지만은 高所로부터 下落되야 어떠한 物體와 衝突될때 그것을 貫通하고 나가는 그힘도 無視키 어렵다。散佈彈이 아니요投下彈이라면 먼저 建築物의 一部를 貫通하야 그內部로 떠려진다。그래서는 다시 불이 이러나서 周圍의 可燃物을 燃燒시키어 버리는것이다。

그것도 爆彈에 依하야 죽人畜의 殺傷을 目的하는것은 目標에 부드치지마자 곳 炸裂되도록 構造가되야 잇지마는 燒夷彈에는 大槪 目標와 衝突된後 數秒를 지나서 비로소 炸裂되도록 맨드러 노흔것이만큼 그러니까 燒夷彈은 몬저 建築物의 內部로 侵徹하야 드러와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燃燒作用의 本格的威力을 이르키게되고잇다。그러면 이무서운 燒夷彈을 어떠케 防禦하야 내겟는가? 그防禦手段에 對하야 各國에서 여러가지로 研究中이라는데 그中의멧가지를 紹介하야보장。(寫眞은 소스벨가氏考案의燒夷彈防禦策으로下回參照)



爪哇見聞記 ❷

土人들의 家屋과衣服等

李永春

日中의 더위를잇고 夕陽에나오는 街上의人種은 참말多種多樣이올시다 第一만히보이는人種은 本土民이고 其外에白人 歐洲印度人(半種) 中國人 馬來人 印度人 『아라비아』人 日本人等 各色民族을 차질수잇는것입니다。市街地가 廣濶함으로自動車 馬車以外에 自轉車가 無數히 利用되고잇는데 勿論鑑札이라는것은업고 男女區別 人種別이업시 列을지어 다라나는光景은 참말볼만합니다。

土民은 一般이 體小하고 鼻梁이낫고 女人은 特히 鼻翼이發達되고 丹顏이며 顏色 皮膚는 多少검은感이잇스되 南部印度人갓지안코 오히려 日本人과가튼便이 만타할수잇습니다。洋服이나입고 말하지안코잇스면 全然 區別키어려운 때도 잇습니다이것은나個人의 觀察일뿐아니고가티간 一行들도 同感이엿습니다 東印度 土着人種은『뉴기니아』土人을 除하고는 全部印度『네시아』系에 屬하는 約五十種類의 種族이 잇습니다 『뉴기니아』土人은『메라네시아』系統에 屬합니다。이 種族의 文化程度는 區區不同이나 그中가장 進步된것은 爪哇族입니다。가장低劣한 種族은 中部『스마트라』에사는 放浪民族이고 또 最近비로소 鐵의 使用法을 알엇다는『뉴기니아』의『파푸아』族이 잇습니다。爪哇族의 一部는 現代文化의 影響을 밧어조곰도歐洲人、日本人과 다름이업스되大多數는 아직未開의 域을 脫하지못하엿습니다。衣服은 男子는 內部에 朝鮮『잠뱅이』가튼 것을 짜르게입고 그우에 長六尺 幅三四尺의 大幅爪哇更紗를腰部에두르고 外出 할때에는 朝鮮『적삼』가튼것을입고 머리에는 更紗를둘러쓰고 或은 回回敎徒特有의 帽子를씁니다。女子는地方에따라 大端히 다르나 西部爪哇女人은 多少 洋式을 模倣하엿스며 外出時에는 內衣를입은後『가바야』라하는 엷은筒袖의 上衣를입고『사롱』을둘러 胸部以下를 가리게되엿습니다。土人貴族의 家屋은 歐洲人、中國人의感化를 바더 木造、石造、煉瓦造等으로 그우에 瓜哇一流의彫刻으로서 雅致잇게되엿고、中流以下의賤民은 竹造草葺의家屋에 살며 西部瓜哇에서는 마루를 三尺高에 만들어 그마루아래에 家畜을 치는 習慣이잇고 中部、東部에서는 마루는 좀 나즌것이 普通입니다。食物은常食이 米飯이요 山羊、魚肉과 米飯을섞겨『카레ㅣ라이스』가티만들고 香料로 고추、호추를 만히먹습니다。土民一般은 筋骨의 發達은 조치못하고 擾癖한便이며 性質은 至極히 悠長한듯이 보이며 貯蓄心은 全體薄弱합니다。近日當地新聞을보니 東洋民族中 가장低廉한食費로生活할수잇다는것이 報道되엿습니다。

文學에잇서서・倫理와論理 (2)

金午星

今日의文學이 倫理的인것을要求하는것은 지금까지의 文學이 倫理的要素를 全혀 갓고잇지안엇는까닭은 아니다。우리는 文學史上에서 倫理的內容을 가즌 만흔文學을알고 잇다。勸善懲惡의 文學들이 그것이다。그럼에 不拘하고 倫理問題가 새삼스럽게提起되는 무슨까닭인가? 아 問題의 提起性은 倫理에 對한 새로운 解釋을念頭에 두지안고는 理解할수업는일이다。

今日의 文學이 倫理的인것을 要求하게되는것은 合理主義、卽理性主義에 對한 反抗에서라고나는 생각된다。그것은 理性主義가 本來 非倫理的인까닭이 아니요 從來의 倫理가 오히려理性主義에 立脚하엿스며 이理性主義倫理가 今世人에게잇서는 容認할수업는 反倫理性을 보혀주고잇는까닭인것이다。正統派의 哲學은 倫理와 理性을 同一視하엿다。理性에 依하야 모든情慾을 抑壓하며 統制하는것을倫理라고 한것이다。그들은 아무런意慾에도 흔들니지 안코 아무런 感情에도 支配되지안는 理性的 判斷을 가지는 사람을가르처 道德君子라 하야 理性의 온갓 規範을 倫理의 格準로 삼은것이다。그러면 倫理의 格準은 理性의 規範은 어대서 생기는것인가? 그것은 오직認識에서 엇어지는것이며 더욱이 客觀的認識에서만엇어지는것이다。웨그러냐하면 理性은 意識의 客觀的 象面이며 客觀的論證을 主眼으로 하고잇는 까닭이다。그런대 認識과 論證은 對象을必要로한다。이미 存在하는 對象이 업시 認識과 論證은 不可能하다。그러므로 푸라ㅣ톤에依하면 理性(로고스)은 이데ㅣ(觀念世界)에 向하는것으로 로고스를 認識함은 곳 이데ㅣ를 回想하는것이라하엿다。다시말하면 理性은 本質世界를 認識하는能力이며 本質世界는 旣存的인것임으로 本質을 認識하는것은 곳 本質世界를 回想하는것에지내지안는것이다。이러한 意味에서倫理의 格率인 理性的 規範은 本質世界에屬한것이며 理性에 依한 倫理的 行爲는 오직 本質世界를 回想하는 行爲에 지내지안는것이다。現在의 行爲가 過去의回想에 不過한것 이것이 理想主義의 倫理엿다。그러나 倫理는 客觀的 認識이아니라 主觀的 行爲이며行爲는 過去에對한 回想이 아니라 未來에 對한 創造인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理性主義倫理가 行爲하며 創造하는 人間에게는 反倫理的임을 알수잇는것이다。主觀이 업는곳에 倫理는 생각할수 업는것이다。主觀의 槪念을 確立한 사람은칸트다。그러나 칸트에 依하면 主觀은 意慾이나 感情이 아니고 그것을 捨象함으로서얼어진 自我며 理性이엿다。그러하야 그는 理論理性과 區別되는 實踐理性을 倫理라햇다。그러나 實踐理性도 理性인限 認識과 論證을 떠나 생각할수 업는것이다。오직 理論理性은 對象에 制限한 認識임에 反하야 實踐理性은 無限的認識 즉 絕對에 對한 要請인것이다。이리하야칸트는 形式論理의 要請으로서論理의 格率을 規定해가지고『너의 意志의格率이 항상同時에普遍的 立法의 原理로서 通用되도록行爲하라』는形式的 規範으로서人間의 行爲를 規定하려한것이다

登山篇 (十一)

山上의露營一夜

—神鷹傳說의護國精神—

李殷相

세상을 버리고 이山嶺에羽化登仙한듯한 오늘、얼른생각하면 지금내게는 父母兄弟도 업고 지금내게는 隣里親朋도 업게 다만滿眼이 빼속에들어오는것만 실컷장노기면서 스스로 제몸을 巫廟蓬萊한 사이에 떠넘러 無家無慮의 夢幻境에 陶醉한것만가타도、너무나 分明하고 너무나 的歷하고 너무나 嚴肅한 人生의 現實이매 이즐수도업고 버릴수도업서 아니 오히려 한결욱나아가 저아래 머믈고잇는 내父母를 念하고 내親知를念하고 내民族을 念하고 또蒼生을 念하는것이다。

茫茫한 大海大空의 저편으로 떠러져 나려가는 夕陽을 바라보며 宇宙萬象의 迅速한 行進을 깨다르매 깨다름스록 再歷史와 再現實과 再未來에 對한 關心이 허술할수가 업는것이다。

北을向하야 구름속에 잠긴 古邦을 생각하매 지금 이滄海山上이 거룩한채로 寂寞하고 寂寞하다못하야 저사슴의 우룸보다 더凄凉해지는것이다。

나려다보든 眼下屹이 纖細보다도 더부드럽고 더아름다운데 제몸을 한번날려 새가티、독수리가되 저大海大空을 미끄러지듯이 날아나 보앗스면 조흘것도갓다。

生前에 못이룬뜻이면 死後에化身爲鳥로라도 大願을 이루어 제몸의 쓰임곳을 求할이것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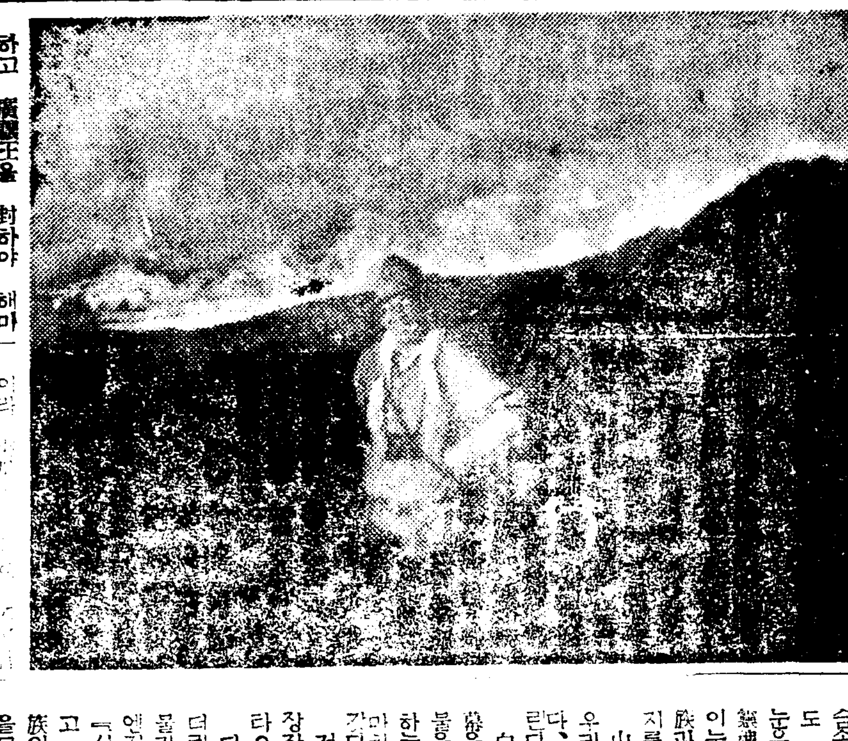
金河西의 『漢拏山』詩에

熊狐豺虎雜谷跡
惟見鷹鸇九萬摶

이란것이 잇거니와、또한 새라、매(鷹)라、독수리라하매 이곳의 오랜傳說이 생각난다。

漢拏山神의 아우되시는이가 生前에도 聖德이 계섯거니와 돌아가신後에는 또神이되시엇는데、高麗朝에 宋나라胡宗朝란者가 濟州島를 來壓하고돌아갈새 그神이 매(鷹)로化하야胡宗朝의 배를 그냥보내지 아니하려고 그배의 집ㅅ대곳해안저 北風을 이르켜 미침내 胡船이 飛揚島의 岩石間에서 破碎를 當하고말앗다。朝廷에서 그大鷹의 靈異함을 褒賞하기爲하야 食邑을賜하고 廣壤王을 封하야 해마다 香幣를나려 致祭하게한것이因하야 李朝에서도 行하든 일이엇다。

그러나 胡宗朝는 高麗에 來仕하야 벼실이 起居舍人에까지 이르러 天壽로 卒한사람이라 [illegible] 할이야기라고 하거니와 그傳說을 通하야 民衆이 어떠케나 護國精神에 富한民族인가를 넉히 짐작할것이다。



山上에 해가저문다。山上의 黃昏은 莊嚴하다。그럼으로가슴속에 일어나는 생각과所願도 적을수가 업는것이다。내눈은 더욱더욱 크게뜬다。내靈魂의눈、內思想의눈은 올빼미눈보다도 더크게 뜨고 民族과 蒼生을 爲하야 무엇인지를 探索하려는것이다。

山上에 해가저문다。오늘밤 우리는 이山上에서 지낼것이다。바람은 점점차고 몹시떨린다。

白鹿潭畔、草原한머리에 帳幕을친다。帳幕머리에는 장작불을집힌다。저녁짓는 煙氣가 한울로 하무더기 터저오른다 마치燔祭를지내든 舊約時代와 가다。

저녁이 끗낫다。달이오른다 장작불은 붉은혀를 내어밀며 타오른다。

더러는 帳幕속에 누웟다。더러는 달을 거닌다。더러는 물가에 둘러안저 무슨이야기엔지 밤가는줄을 모른다。

『시나이山』上에 帳幕세울것고 옛先知者『모세』와 『엘리아』와 民族의恩人『모세』와 聖師基督을모시고십다한 『베드로』의말이 記憶된다。

이 거룩하고 神祕한 漢拏山上에서 나도또한 우리歷史의 先知者와 恩人과 聖師들을 景慕하는것이다。

記錄에는 이곳에서 南極老人星을 볼수잇다하엿스나 저어느별이 壽星인지 알길이업고、다만 耿耿한星光아래 우둑히서서 한울을 우럴어 생각할다름이다。

밤은깁허간다。밝은하늘에달은밝고、불꼿은 如前히 타오른다 이따금 불꼿속에 나무튀는소리가 山上의 寂寞한밤을때린다。

우리一行은 어린羊떼가티될옷을 겹겹이입고도、새우가티 다리를 오그리고 잠이들엇다 벼아리들가티 머리와머리를서로 한곳에 파뭇고、누에가티 자면서도 움치락거린다。

나는 今行에 責任을진者라 일어나 帳幕밧글 한두바퀴돌앗다。周圍에는 아무일도업다 우리帳幕은 편안하다、漢拏山神의 따뜻한 날개속에、安心하고이祝福의밤을 지날것이다。

달이밝고 불꼿은 如前히 타오른다。나는 帳幕 門어구에 서서 마음의손을 모으고 하늘을 向하야 비는것이다。

지금 이 莊嚴한山上
하늘에 오른 하롯밤
달과 뭇별과
나르는 구름과 함께
말업시 서서
타오르는 불꼿과
이 꺼업는 연기속에
내 적은 마음을
祭物로 바치노라。
이 거룩한『시나이』山
내 漢拏山
바람따라 넘실거리는
『물흡』의못가와
솟고솟아 둘려친
돌부다귀와 바위아래
지금 이밝은 밤을 타고
여기 모이신
내 歷史의 모든 英雄과
모든 恩人과 聖人들의靈魂을
나는 바라보노라。
쓸어진 갈밧가티
쓸쓸한 山河
그러나 내땅을 爲하야
저 거룩한 靈魂들이
여기 직혀 머무나니
이 嚴肅한 山上의밤에
우뚝 서、손을모으고
비는 마음이
헐된곳에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밋노니 헐된곳에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사진은 山上의默禱)

錬金術

譯詩의對照

又夢人

詩人 푸란씨스・짬(Francis Jammes)의

어제놀든 山밋집엔
꼿이 피드니
어이업고 오늘날
落花의 물결우에
나홀로 시름어시
하늘을 보네
사랑하는
그이는
오늘 왓
는데
술푸다봄
이왓다
말도 하
기前
피든꼿은 어느덧
물속에 지네。

이런詩가 잇는데 이詩를 中國의 稷國藩은

昨遊開花山下家
今朝又涉落花波
春色却以人來去
暫見開花又落花

라고 七言詩로 번역하엿는데 譯詩도 原詩에 比하여 그리遜色이 업다고한다。그리고 끄르몽(Grourmont)의『가을노래』라는 다음과 가튼詩가잇다。

내게로 오라
나의 親한벗이여
只今은 淪落한
가을철이다
寂寞하고 陰散한
가을철이다
그러나 벗나무는
丹楓들고
薔薇는 무르익어
愛人의 接吻가티
붉지안은가?
내게로오라 나의 親한벗
이여 只今은 寂寞한 가
을철이다
外套를 입어도 선선한가
을철이다 그러나 오히려
太陽은 다스하고 그대呼
吸기리 가벼운 맑은空氣
우엔 비단가튼 안개가나
부끼지안는가?

하는詩를 掘口九萬一氏기秋詞라하고 題하고 다음과가티 漢詩로 번역하엿다。

靜境卿快來 滿目入秋天。
萬籟歸幽寂 歸鳥落照邊
只有櫚班櫻葉紅 似卿唇頭
紅欲燃
靜境卿快來 滿目入秋天
金氣滲肌骨 草間露華鮮
幸有秋日晴可愛 卿心快活
亦復然
靑山卿淸鶴 速我夢寐邊

이라고 飜譯하엿는데 一般文藝家의 評이 原詩보다 더 神韻味가 잇다고한다 이러케보면 譯詩도 그러케 輕視할것이 아니라는것이다。

新刊評

吳章煥氏의詩集 『城壁』을읽고

金起林

知識人은 現實에對한 平凡한 適應者는 아닐것이다。그는現實의分析者며 또批判者다。그러타면 우리는 어떤文化의 部門에 向해서도 歷史와 現實에對한良心을 물을權利가 잇슬터이다。詩의衰滅을 云謂하는것은 오늘 西洋을 睡棄하는것과함께 流行처럼되여잇지만 나는 詩의衰滅이란 小說이 千部를 印刷하는데 詩集은 겨우 百部를 印刷한다는 算術的인 事實을 가르처말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詩集은 훨씬 열부만 바처도 조타。다만그속에서 時代에對한 良心이 들려올때 우리는 어떤類의小說의 繁榮을 반드시嫉妬할필요는업다。

吳章煥씨는 일죽이는 길거리에버리워진 조개껍질을 귀에대고도 바다의 波濤소리를듯는아름다운幻想과 直觀의 詩人이엇다。그러나 이번『城壁』에꼽라서여끈 詩篇들은 그러한 꿈의 世界와는 판판으로 成熟하고생각만흔 靑年의 情熱에 그슨苦白으로서 피돌려저잇다。그것은 貴公子의 옷기슬 裝飾할 眞珠부스러기는 아닐지몰라도 分明히읽는사람들의 精神에 情熱과 良心을 點火하는 불씨들이다 우리는 이한卷을通해서 吳章煥씨의 熾烈한 精進의 氣魄과 아울러 그 健康한 進展의方向을 알엇다。

씨는 새『타입』의 抒情詩를 세웟다。거기담겨잇는 感情은틀림업시 現代의 知識人의 그것이다。現實에 대한 極端의不信任。行動에 對한 熱烈한志向그러면서도 理智와 本能의 矛盾때문에、支離滅裂해가는 心理의 變移。惡과 頹廢에對한 기픈洞察。混亂속에서도 어떠한 秩序를 追求해마지안는 悲劇的인努力 무릇그러한 煉獄을 通過하는 現代의 知識人의 特異한感情에 表現을 주엇다。

우리詩는 分明히 자랏다。芝溶에게서 아름다운 語彙를 보앗고 李箱에게서 『이메지』와 『메타포어』의 彈力性을 白石에게서 어두운東洋的神話를 차젓다。『城壁』속에서 그러한여러餘韻을 듯는것은 우리詩가한 傳統속에서 푸른하지라가고잇다는반가운證據다。

『城壁』한卷은 씨가新鮮한새 解殿우에 세워진道標이다。또한 우리詩의 明日의展望의 一方의 保有할것이다。(發行所京城府鍾路町九六、眞林社 定價一圓)

雜筆

病院뒤ㅅ사람들 ④

朴榮濬

記憶을 새롭게하기爲하야 이제부터는 일홈을쓴다。우리患者 순실의病은 췌신것다。

빼와가죽새에 살이라고는 한점도 잇지안흔 그얼골에도 紅桃色이 돌며 깜안눈동자 슬가리로 유달리 기다란 살눈섭은 그다롭다음을 나타낸다

一年남어 제발로 서지도못하든애가 토끼갓치나마 저혼자깡충깡충에거름 것는다 떠病院에서는 집피려야겟다는 그다리가 이제는 完全히 제것이되엿셈이다

擔當醫師도

『너만는 잇슬수가업다 手術하면서도 이것이 날가하고疑心햇드니 이제는 제법것기까지하는구만 手術室에 올려논때는 주먹만한는것이 이제는 상당한 색시가됏는걸……』하며 깃버햇다

自身의깃봄을 滿足식히기爲햇슴인지 순실이를 생각하는마음에서인지 그는 순실에게 갑나가는 人形까지 사다주엇다。

우리는 깃벗다。

순실이어머니도

『다음부터는 제발일지마러라하며우섯다。』

그러나 이後園은 週期的으로 다시 우리의미음을 흔들엇다。

入院햇든사람、한쪽은 男女가 飮毒自殺하려든 한쌍 女子는 살어나갓는데 花柳界에잇는것기트며 그뒤번도 訪問아니오는 말。그男子는 手術해야한다하나 手術을 그만두어달라고 말리다가 죽엇다한다。

後園을 뒤범벅여 노흔 새로운 女子한명 어리엿슬때 腦膜炎에 걸린影響이라나『유까다』입고꺼꾸로 (사가다찌) 서기를 조화한다。

後園은 퍽이나 지저분 하게 되엿다。

盲腸炎患者인 어린애하나는 藥먹기가실타고 종알댄다。

차라리 입에서쓰고 속에드러가 편햇으면 조흐련만 입에선 아모려치안코 먹은뒤에 며식며식해서 못살겟다는말이다。

어린애로써 무던히 참을성이 잇스며 기특하다고생각햇다。

이病院後庭도 맛이 입에만쓴 藥이엇스면──

순실의病은 退院해도 조흐리만큼되엿다。醫師가 그러케 말햇다。

우리도 贊成은햇스나 차라리 그말을 듯지못한편이 조왓슬번햇다。

病을 고치여주고 새사람을만드러 自由스런몸을 풀러주엇것만 自由스럽게나갈 準備가업섯다。

醫師도 무던히 고마웟다 그만큼참어준것이!

나는 急히 도라다녓다。

그러나 동무들은 비우섯다。

『好事家──』

『제압재비도 못하는것이 건방지게──』

석달동안 病院엘 다니엿고 그代價로 순실의病이 完快되고보앗으나 내가들은말은 結局 쓰라린것이엿다。

나는 病室을 들리지안고 病院後庭엘갓다 病室에간대야 조흔表情으로 순실母女와 對할수가업슬것갓기때문에

늙은나무밋 빼쥐에안저 엽에 누가잇는가를 살히지도 못하고 가을빛 지허가는 北岳을 바라보앗다。

어디서 들리는소리만은 듯고십헛다

『나도 날편이죽을때 처음해둔돈으로 장사나시작해보려고햇드니 저에게 맹장염으로 입원해서 돈을다썻읍니다。애는 벗이나되고 무엇을 먹고살어야할는지요ㅣ』

『작우간 나는 祝願이라도 하얏겟는데요。』

이러말이들리는곳으로 눈을보내드니 거기는 순실이어머니와 맹장염으로 手術받은 어린애의 어머니가 잇섯다

그루미 까ㅣ든。

─幸福이란 한怪物이다。그를求하는사람은 罰을밧는다─

프로ㅣ벨。

新刊紹介

▲人生必知 崔一著(內容)人道、生活、家族制度、親에對한恩、人의一生苦痛의歷史、規則生活、金言、富、競爭、朱夫子의十悔文等 其他 發行所 京城府崇仁町六二 東亞產業時報社 振替京城一二二八九 定價五十錢 送料六錢

▲女性 十月號(內容)朝鮮女性과家族制度、가을의表情=朴相昊外諸氏 滄波上의敎訓(女性讀本) 피아니스트金元福(女流人物評)朝鮮八道婚姻儀式巡禮(成婚道篇) 女性是非 戰爭과美人計 支那의女人軍隊 名女流獨身生活打診記=李淑鍾外諸氏 京城各女學校女先生評判記(女高貞信篇) 十日의創作陣 거리의牧歌外數篇 其他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九八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更生 九月號 發行所 廣島縣糸崎市 日本赤十字社廣島支部糸崎療養所內 更生社 振替大阪七七五三一番 定價十五錢

▲基督敎報 第一二五號(週刊)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九五〇番 定價一部五錢

▲新人間 九月號 時局問題特輯 發行所 京城府慶雲町八八新人間社 振替京城一〇一一八番 定價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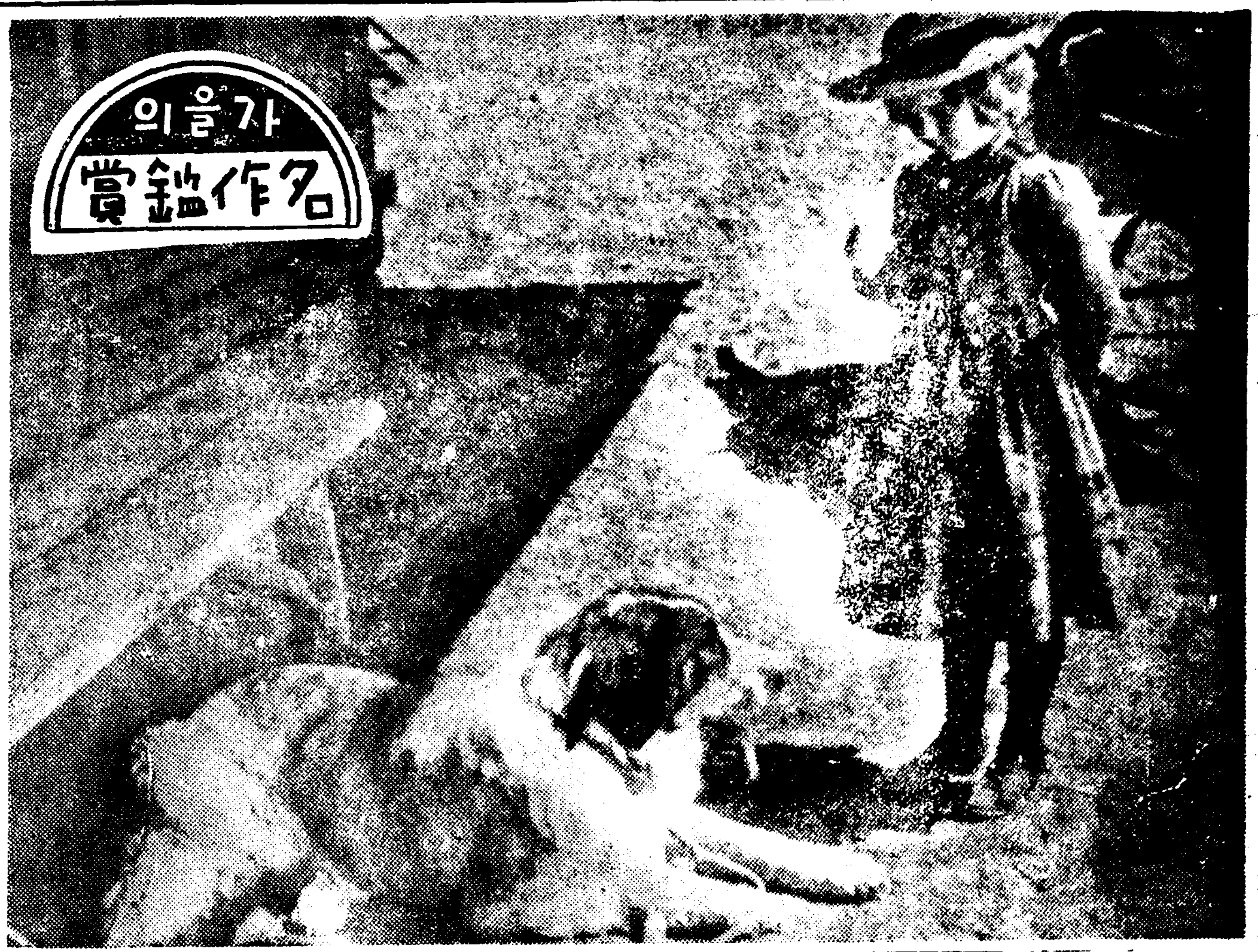
▲少年 十月號(內容) 童話=公主님가는곳 白虎 웅철이의모험 童謠=집보는시게 아카시아꼿 小說=봉숙섬 探偵冒險 長篇小說=白假面 漫畫 少年小聞 少年愛讀者寫眞帖 等 其他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九八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룡천검 九月號 發行所 京城府堅志町八〇 룡천검社 振替京城二七〇〇四番 定價十五錢

▲기쁜소식 九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五 東洋宣敎會 聖潔敎會出版部 振替京城一一五五〇番 定價五錢

▲週刊太陽 第十三號 發行所東京市赤坂區表町三ノ一四心交社會 振替東京六三三六八番 定價一部五錢

▲朝光 十月號 戰爭特輯號(內容) 國家와宣傳 支那事變特輯 日支事變의展望 日支紛爭과英米의動向 外數篇 上海避難狼子非座談會 日蘇大戰과兩國의作戰 空襲과避難方法 戰爭과間諜의活動 戰爭小說=아버지의召集 極東의戰雲 朝鮮의五大寶劍 死線을넘어선그時節 曙雲峯의生涯와藝術 十月의詩歌=동키호ㅣ테外數篇 十月의創作=勞退勝外數篇等 其他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九八番 定價四十錢 送料本社負擔



『하이디ー』
쒸ー리ー、템플 主演、아람도완監督、二十世紀폭스映畵

이트·쏘나타』를譜奏해넘긴 妙技에對해서는 映畵팬뿐 아니라 一般音樂팬들에게도 多大한 期待가 걸려잇다고한다。

映畵界에 또好消息
聖峯映畵園이主體되여
朝鮮發聲映畵製作所創立
벌서議政府에서製作所建築着工

봄以後 朝鮮映畵의 놀랄만한 進出과 여기에 일어나는企業熱은 날로노파가고잇서서 얼마전에 朝鮮映畵株式會社가 五十萬圓의 資本金으로 創立되여서 스타디오를 建設하고『沈淸』의 錄音을 請負하얏거니와 이에또 聖峯映畵園의 鈴木重吉氏와 洪燦氏等中心으로 朝鮮發聲映畵製作所라는것이 創立되여서 지난八月二十五日부터 스타디오의 起工을보게되엿다。

이朝鮮發聲映畵製作所는『나그네』에서 힘든한 王平을中心으로 今年봄부터 新興키네마系의 鈴木重吉氏와 金某라資本主사이에『라이언』이 進行되고잇서서 洪燦、王平兩氏가 中間에서 이것의産婆役을맛게되엿는데 스타디오의 位置는 議政府 龍淵洞 會谷에二千坪의基地를 買收하야 鍾路四丁目 韓工務社에서 二萬八千圓으로 이것의 請負를맛터 工事를進行시키고잇다

그러고 錄音機는 六萬二千圓을주고 얼마전에 사왓스므로이것이 落成되는날에는 發聲映畵製作에 積極的으로 나오리라하며撮影所長은鈴木重吉氏라고한다

『月光曲』
特殊公開

世界的 피아니스트『잔·파데렙스키ー』를 隱退生活로부터起用해서『로라ー르·멘듸스』監督이『활스·퍼ー렐』『마리ー·렘페스트』『버ー바라·그린』主演에依한 英『포ー르모르』撮影所에서 完成한 未曾有의 音樂映畵『月光曲』은 日本유나이테드社에 入荷해서 製作中이엿는데 이마치내 完成되엿슴으로 日本版을 씨ー즌이 한창될때 特殊한方法으로서 公開하려고 프란을檢討中에잇다 劇中 約三卷으로全部 파데렙스키ー의 彈奏로終始해잇는데 難曲이라고하는『모라

레코ー드界
洋樂으로傾注

레코ー드의 價格은 特別附加稅때문에 말리온以外에는 各各 一割의 昻價가 되엿는데 이번 昻價는 레코ー드界에 어떠케影響하엿는가? 위선 邦樂은 相當한 打擊을바더 小賣商이 먼저 困難을 當한後 會社自體의 賣續이 不振함으로 小賣商은 東京音盤商組合 레코ー드會社는製作家協會가 中心이되여 各己屬策을 講究中이다。 여기에及하야 洋樂은 影響을 밧지안으로는 何等의 價格引上코잇다。이것은 洋樂팬이 一割程度의 價格引上은 問題로하지안는 階級의 사람들인때문이나 各社는 今後 이것을보아 洋樂版에 全力을 傾注하리라고 보인다。

진ー하ー로
瞑目하라!
===디ー스孃의代役으로===
사라토가完成

『진、하ー로ー』가 클락ー크、게ー블과함께『사라토가』를撮影中 急死를해서『허ー리옷드』에서는 一代의 名女優를 일헛다고 다함께 哀悼의 情을 禁치못하얏는데 더구나 억갑기는 그映畵가 거의 다 完成되여가는데 不意의 他界를 한때문이엿다。

그러고보니『진、하ー로ー』의 代役을 할만한 女優가어듸 그럿케 손쉽게 나라날수가잇겟는가? 허는수업시『사라토가』는 눈물의 未完成인채 銀幕에 오르지못하고 放棄된다는 風說까지 一時 流行하엿다。 그러든것이 意外에도『사라토가』는 훌륭하게完成되엿다。

더구나 칼리포르니아의 一小村인 로모리에서 試寫를 行해서 上乘的作品이라고 關係者間에도 評判이조코 監督인『작크、콘웨이』도 滿足한눈치를보혀서 인제는地下의『진하ー로ー』도 瞑目을하리라고 모두 깃버한다고한다。그런데問題의『진、하ー로ー』代役으로 뽑히니는 누구나하면『메리ー、띄ー스』孃인데 未完成된 最後의 두어場面에 나와서 모두 뒤으로만바히기는햇스나 그 몸맷시라든지 거름거리가 아주『진、하ー로ー』와 한다서판에 박어낸것갓해서눈딱감고 보아도 딴사람으로 생각되지안흘만큼 훌륭하게 完成되엿다고한다。

하이킹코ー스
京城近郊
爽快! 륙색에가을을지고
山川도리하는조흔씨ー즌
現代的週末休養을위한土曜特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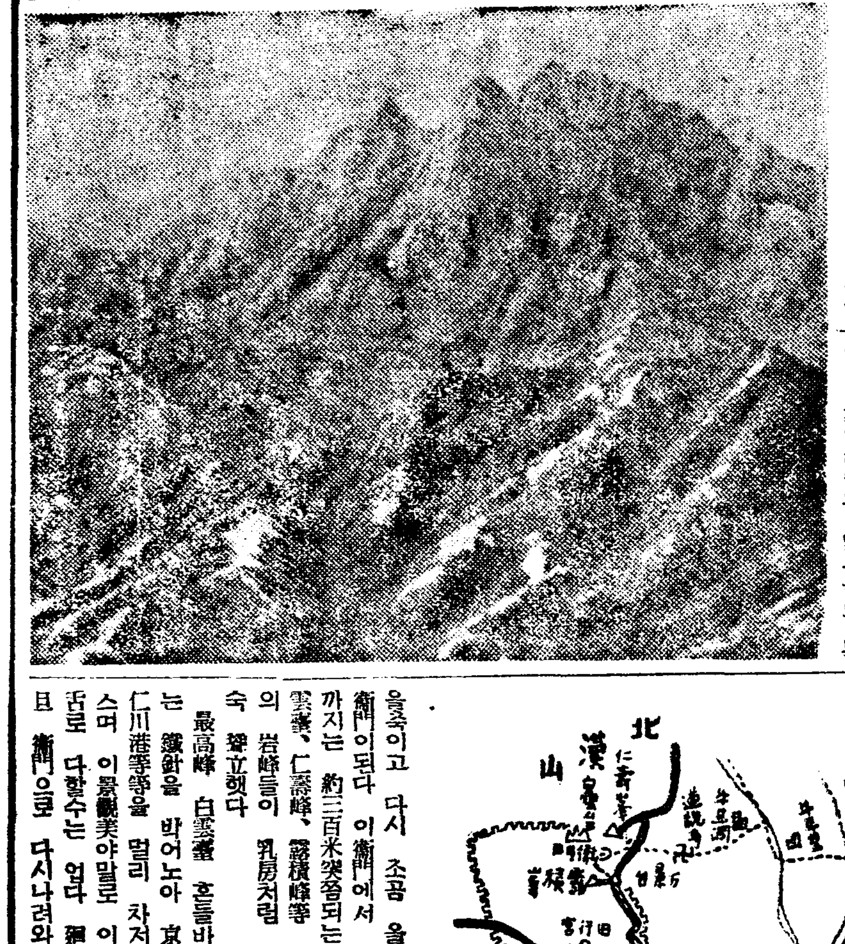
때는 仲秋이라 아츰저녁으로 서늘한 微風이불어와 가만히 우리귀에다 대이고 아지못할말로속삭여준다。이微風이야말로 하로終日勤務에 시달리엿든頭腦를 씨서주는데의 淸凉劑이며疲困에못이기여 끈히잠들엇다가 새벽녘에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피일때의 覺醒劑인가한다 그뿐이라 가을도 압흐로지러갈수록佳境을이룰것이니 公休日을 틈타서 이佳節을利用하야『하이킹』을해보는것도 無意味한것은 아니겟지? 부러오는 凉風으로 心身을洗滌하며 三三五五作伴하야『들노리』나『하이킹』을 하는그맛이란『하이킹』을 해본사람이면 거즛말이 아니라고 말할것이다

一、北漢山코ー스

倉洞驛(汽車)ー倉洞ー(三、五粁)牛耳洞(一、五粁)導詵寺(二、五粁)衛門ー白雲臺 衛門(四、五粁)城壁大成門(四、六粁)北門 一、二粁 孝子町電車終點 徒歩距離 十七粁六 所要時間 七時間二○分 費用 京城서片道 三九錢 淸凉里서片道 一六錢

北漢山은京城北方郡城의 外廓을싸고잇스며 一名三角山이라고도한다 그最高峰은白雲臺(八三六米)라고하며 仁壽峰 萬景臺와더브러 聳立햇스며 四方으로支脈을빼터 天然的 城廓을이루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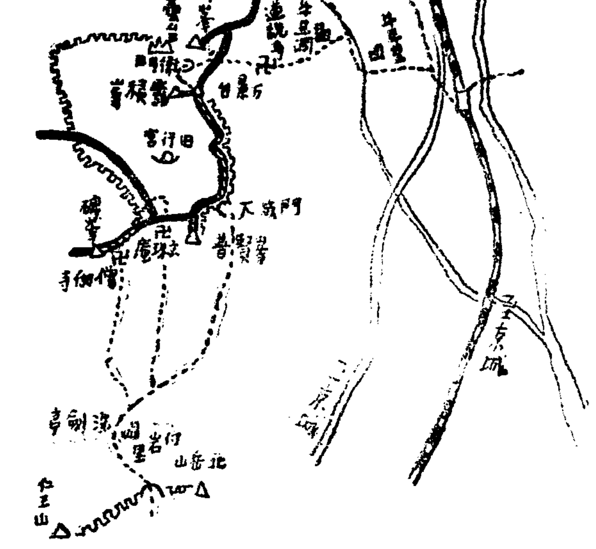
이最高峰 白雲臺는倉洞에서부터登高하야 城壁을이루고 京城市街로나려오는코ー스가 時間的으로나 또는『하이킹』을하는價値上으로보아도 意義가잇슬것가리 미뎌진다



行程 一

倉洞驛에서 나리여西便을보면 北漢山이雄壯한 姿態로 聳立해잇스며 여기서부터牛耳洞까지는 코ー스가 平坦하야것기도便하며 牛耳洞溪流를 드러서게되다 이溪流를끼고 조곰더가면 導詵寺가 잇는데이導詵寺를지나서 約二十分假量 더올나가면 人家가 하나잇는대 여기서子先 잠간쉬여 人家엽헤잇는 맑은물로 목을축이고 다시 조곰 올나가면 衛門이된다 이衛門에서 白雲臺까지는 約三百米쯤되는대 白雲臺、仁壽峰、露積峰等 乳房狀의 岩峰들이 乳房처럼 볼죽볼죽 聳立햇다

最高峰 白雲臺 흔들바위우에는 鐵針을 바어노아 京城市街는 仁川港等等을 멀리 차저볼수잇스며 이景觀美야말로 이루 筆舌로 다할수는 업다 邐路는一旦衛門으로 다시나려와서 西便으로난 좁은길이잇는데 이길로 나려오면 右便으로 中興洞으로 나려가는길이 잇는데 이길로 드러서지말고 左便길로나려오면 萬景臺 露積峰 鞍部에 나오게되며 大成門에 이르게된다 이大成門에서 約五十米쯤떠러진곳에 文殊庵이잇는데 이 文殊庵에서부터 南下를하면 平倉里에 이르게되며 平倉里에서 十分남짓 거러오면 洗劍亭이된다 또는平倉里에서 近路를 取하야 彰義門을 넘어서면 곳孝子町電車終點에 到達하게된다



行程 二

이것을 行路一을 反對方向으로서 取할수잇는 것이니 孝子洞電車終點 에서부터 彰義門을 거처洗劍亭을 끼고도라가면 平倉里에이르는대 文殊庵가는方向을 指示해논 木標가 세워잇다 이길로고더올나가서도라가는 길이잇스나 時間的으로 約一時間은損害이길로 드러서 約三十分거러가면 文殊庵이 닷는대文殊庵곳속에 아주시원한 藥水가잇다 이藥水로 목을축이고 다시길을잡어 大成門을 지나十分쯤나려오면 太古寺가잇고 太古寺압헤는 바로露積峰이소사잇다 여기서부터는 그냥白雲臺까지올라가는 코ー스로되여잇는대 文殊庵에서 白雲臺까지 一時間이면 넉넉히 닷는다

回路는 牛耳洞으로 도라오게되는대 倉洞서 汽車를타고오는 것보다 大路를잡어 東小門까지徒歩로 올수잇스며 全코ー스를 全部徒歩로한다면 빨리도라오다하여도 十時間은걸린다

(寫眞上은 北漢山頂下는 北漢코ー스略圖)

名監督의포ー즈 ❷
저表情! 深刻한監督術

一代의名監督으로 일홈을날리는R·K·O의『그레고리·라·캬봐』가『스테ー지·도어』의撮影中『진저ー·로저ー스』와『루시르·포르』에게 무엇인지 撮影에關한注意를들려주는 場面。

寫眞을보면 조선바지저고리를입은듯한 이老監督、人生의뒷골가리 올쭉하게파인주름살과 유달리빗나는눈동자는『캬봐』獨特한 深刻味가넘처 그眉宇에나타나고 잇다。손을드러 熱心으로 說明하는말을 맛치慈父의訓話나 듯는듯이 謹聽하고잇는두女優도 오로지 名監督의熱誠에感動된바이겟지마는 또한 그演技에對한 情熱도 嘉尙하다지아니할수업을것이다。

이作品은『쇼ー보ー트』로不朽의일홈을가지고잇는『에드나·퍼ー버ー』와『죠ー지·코ー프만』合作의舞臺劇인데 마ー가렛트·사라반의 主演일에서 昨年十二月부터 今年三月六日까지『뉴ー욕』『뮤직크·복스』劇場에서 公演되어絕對의賞讃을바든 名作인데이제R·K·O에서『僞裝의女子』『女性의反逆』『目擊者』『조울거나』『메리ー女王』等의 製作者인『판드로·퍼ー만』의 指揮下에서『그레고리·라·캬봐』의監督으로 製作하게되엿스니 이原作 이指揮로 製作하는 이監督도決코쉬운일을 마타다고할수업슬것이다。

그러나『라·캬봐』의저러듯 深刻한表情이 以心傳心으로 俳優에體傳된다면 우리는 이大任이無事히 成功될것을信任해도조흘것이다

라디오

十七日 (金曜)

◇午後六時(淸) 이야기와唱歌 ー全鮮中繼ー 一、이야기 淸凉으로부터 二、唱歌 가、齊唱 我が駒 田中銀之助作曲 나、同 お洗濯 洪蘭坡作曲 다、獨唱 砂山 山田耕作作曲 라、齊唱 花籠 佐佐木すぐる作曲 淸凉第一公立普通學校兒童 盧周善(男) 獨唱 徐良淑(女) 金容哲(女) 피아노伴奏同校訓導 玉城遠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分 課外講座
◇同七時三五分 防空常識
◇同七時四五分 軍歌『工夫の凱旋』 鈴木合唱團
◇同八時(大) 室內樂 大阪放送四重奏團 第一빠이올린 ... 라ー드·리·브래히트 第二同 吉田猛 빠이올라 西田秀雄 첼로 吉田貴壽 四重奏曲 十八番第五 베ー토ー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同…매누엣트 第三同…아단레·칸타빌레 第四同…알레그로
◇同八時三○分(平) 西道歌謠 朴永淳
◇同九時 時事解說

第一放送
◇同六時(淸) 唱歌
◇同六時二五分(城) 修養講座
◇同七時三○分(大) 社會面
◇同七分五五分(大) 室內樂
◇同八時三○分(大) 講談
◇同九時(東) 時事解說
◇同一○時四五分(東) 支那語뉴ー쓰

十八日 (土曜)

◇午後○時五分 伽倻琴散調와並唱 一、散調가、중모리 나、자진모리 二、並唱 가、短歌 瀟湘八景 나、赤壁새타령 崔鳳濱 杖鼓 池龍九
◇同一時一五分 家庭講座(三)『毛絲編物』(八九歲女兒스워터) 金順喜
◇同六時 少年映畵이야기『두사람의마음』 成東鎬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分 講演『科學과想像』 趙炳俊
◇同七時三五分 防空常識 ▲滿洲事變의밤
◇同七時四五分 講演 朴榮喆
◇同八時一五分 唱劇 磐石縣城의殊勳 唱 李素香 鋼 任斗哲 杖鼓 韓成俊
◇同八時二五分(大) 吹奏樂 大阪吹奏樂 指揮 菅原明朗 一、南北戰爭을謳歌한現代의二名曲 二、勝利의오라ー스 오네쓰가作曲
◇同八時五五分 라듸오드라마 磐石縣城의三勇士 【配役】 相澤中尉…姜南松 李正洛…金虎山 高元成…方應林 朴京學 朴相烈 李成鐵 胡月 高의妻 申카나리아 이옥子…朴貞玉 解說…朴舞鳴 作及指揮 效果 無作之助座

第一放送
◇午後○時五分 時時
◇同六時(東)童話劇
◇同六時二五分 講演
◇同七時三○分 講演及實況(自奉天)
◇同八時 (東)落語
◇同八時二五分 (大)吹奏樂
◇同八時五五分 (大)物語

十九日 (日曜)

◇午後○時五○分 西道歌謠 一、關山戎馬(秋) 二、긴아리(同) 三、打鈴(同) 四、孔明歌(李、金) 五、자진배다리기(秋) 六、平壤念佛 七、자진念佛(李、金) 八、놀냥 九、양산타령 十、뒤산打鈴(一同) 李眞熙 金玉葉 金蘭香 金秋月
◇同三時 競馬實況(國語) ー京城府新設町競馬場으로부터中繼ー 京城秋季競馬總督賞典競走
◇同六時 童謠 一、달마중가자(金、李) 二、가을(同上) 三、귄단라이(金) 四、기러기(李) 五、달마중(金、李) 六、가을바람(同上) 七、늙은잡자리 八、보름달(李) 九、단풍닙(金、李) 十、달아달아(同上) 피아노伴奏 金順姬 李賢順 白宗一
◇同六、二五分 修養講話 善한習慣 朱鍾宣
◇同七時 銃後美談
◇同七時三五分 防空常識
◇同八時 誦書『秋風感別曲』 白牧丹
◇同八時一五分(東) 피아노獨奏 奏鳴曲『月光』 베ー토벤作曲 井上園子
◇同八時三五分 野談『各國鬼神의報恩』 申鼎言
◇同九時 女聲合唱 一、浦의朝夕 二、가을달 三、銀波를넘어서 YWCA合唱團 指揮와伴奏 高鳳京
◇同九時二○分 달밤의버레소리 ー京城獎忠壇으로부터中繼ー

第一放送
◇午前一一時五○分(東) 野球
◇午後六時(東) 스켓취
◇同七時三○分(大) 獨唱
◇同七時五○分(東) 新邦樂
◇同八時一五分(東) 피아노
◇同八時三五分(東) 舞臺劇

商標 登錄
사면바리、습진
세진
문질너어두면혼자 낫습니다 各藥店에有
三十錢 五十錢 一円
大阪南久太郎町 竹村製劑所

리베ー루 (リベール) 治淋藥

무서운淋病菌
淋病患者의排泄하는 尿或은膿을 顯微鏡으로檢査해보면、無數한淋菌이存在해잇고 黴菌의繁殖力이旺盛하고잇슴은우리들이想像도못해본바이며、하로를經過하면할자록繁殖이激增되야病勢가더덧치며이것이體內에移行하야各機能에多大한障害를주는것이니하로速히殺菌排除에努力을해야한다

本劑의特徵
一、腸粘膜의吸收力이速하고、服藥翌朝尿는藍色으로變하야强한리베ー루臭를퍼티며排出하고漸次快感을알게된다。
一、尿道를侵犯하는無數한黴菌은服藥後힘이솟어이殺菌性尿에依하야體外로씻처냄으로써漸次로痛症을消散식힌다。
一、藥効를알려면은리베ー루의服藥前과內服後의尿를專門家에게顯微鏡으로比較檢査를맛는것이捷徑이고、服藥後날을거듭하야黴菌이殺滅되는現象을볼수잇다

警告注意
自家尿道洗滌又는局所療法等은 黴菌을逆으로속에드려보내서 膀胱炎을이르키거나 睾丸炎에걸려서大端히後悔하는사람이만타 斷然謹愼하여야하다決코他藥에迷惑치말고 優秀治淋藥으로서 信用할만한리ベール를반듯이指名하시라 內地滿洲國海外到處藥店에서販賣한다 萬一品切時는本舖에서直送함(送料不要)

藥價 五日 二圓 十三日 五圓 七日半 三圓 廿七日 十圓
本舖 大阪市東區南久太郎町二丁目 竹村製劑所 電話船場(一五○番 一五五番) 振替大阪三六○番
全國藥店에잇슴

仲秋佳節에適好한名品으로! 九月十七日부터特別大公開! 聖峯映畵園新興키네마協同製作原作脚色李圭煥 錄音鑑督新興キネマ共同監督鈴木重吉 李圭煥 日本輸出封切全發聲
나그네 「旅路」
文藝峰 王平 朴齊行 獨銀麒 紅永? 朴毘映 全海鎭 光模助演
재네말르로超特作全發聲日本版 名匠쁴엘쥬ー나ー르氏監督
流血船엘시노아
잰미유ー라ー로베르비잔主演東日大每特輯
北支事變뉴ー스 及特報
發聲 漫畵
電光三九五 仁寺町 優美館

十七日ヨリ二十日マテ四日間 階下席 十錢均一
ハヤフサヒデト佐久間妙子主演
戀愛青春街 後篇
日本大作超ビアムロコ版 主演 スリモータスエチ
潛水艦SOS
市川壽三郎大塚田鶴子主演
日月走馬燈
(日支事變ニユース特別上映)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 第二回 二、 第三回 七、
永樂町 本三一○四
中央館

◇十六日부터二日間!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三回公開 낫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밤七時十五分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超大傑作 二大名篇公開) 巨匠세실·B·데밀氏監督作品 戰爭史劇
크레오파트라 全十二卷 主演…크레오파트라孃 助演…헨리윌、곡숑氏 카ー돌도、마이절氏
◇P·O·L超特作全發聲時代劇!! 위례·월이암氏
若旦那三國一 全九卷 監督…惠宗?郁氏 主演…藤井貢…逢初夢子
京城新堂町 (電本)七五六七番
新富座

◇九月十六日부터二日間 每日晝夜 二回上映 낫一時 밤七時十五分 始映 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二大傑撰名篇大公開) 監督미지엘·라이센氏 主演푸레데릭·마치氏 助演가이·스탄데인크 이바린부나블 쩰드비아라
大雄篇 明日업는抱擁 全十卷
◇マキノ超特作全發聲時代活劇 監督マキノ正博氏 主演澤村國太郞大內弘 原駒子…月澄江
八州俠客陣 全十卷
(電龍)一三三三番
桃花劇場

◇十四日부터特別興行 十時半、一時半、六時半三回興行
◆支那事變特報
◆東日·大每·朝日·讀賣·各社뉴ー스
◆世界폭스會社提供 (레리ー·도ー웅漫畵)
치ー스騷動
◆新興키네마超特作時代劇 監督、牛原虛彦 主演、市川右太衛門 山田五十鈴
南風薩摩歌
◆世紀폭스超特作 監督、……스칸나ー 主演、에리사벳도·빨크나ー (お氣に召すまま) 마음에드시는대로
團成社
本社京販 電◎本一五九七番

中部版

江原道初等學校 慰問袋多數募集

【春川】지나사변으로 일반은 비상한긴장미를띄이고 총후보국방면으로 총후의후원에 만전을기하고잇는데 강원도군사련합국과련락을취하야 위문대를 각초등학교로부터 수집케하얏는바 불일 일천오백개만 위선 이십사단관하로보내게되엿다고한다

不得已中止하게된 今秋의滿洲移民

"鮮滿拓殖"에서江原道廳에正式으로通牒

待機中인農民들은蒼黃罔措

【春川】이민국책(移民國策)의제일선에서 활동하는 선만척식(鮮滿拓殖)회사의 이민공작 요금춘부터 착수되여 간도성(間島省)안도현(安圖縣)에제일회로 강원도에서만도 칠백호 삼천사백이십구명을 이민식혀스며 금년가을에도 오백호를 이민식힐계획이엿섯는데 사정에의하여부득이중지한다는 통지가 비공식으로 강원도당국에 도달하엿스므로 제반이민공작을 일시중지한다고한다

그런데 이민중지로 말미암아 죽접 큰타격을밧는것은 강원도민으로 제일차의이민이 지난봄에출발함을보고 구사일생으로자긔들도 새천지에가서 새로운융기를가지고 새살님을해볼가하야 가을에모집하는 만주이민에뽑히고자 모든준비를하엿고 기대리고잇섯는데 의외에 이민사업을당분간중지한다는통첩을밧고 또다시 실망락담의 구렁에빠지게되엿다한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일시적중지로되기를 바라는바이요 압호로 곳 만주이민의기회가오기만 기대리는사람도 만타한다

榮州郡民熱誠

【榮州】지난십사일까지 경북영주경찰서에 들어온 국방헌금과 황군위문품은 아래와갓다 한다

三百圓 榮州支家堂朴日成 三圓 一錢 新岩詩堂 吳壽慶外三十二名 一圓七十錢 豐基李有順外四名 一圓式 豐基公普六年 林永鎬 姜鍋達 榮州公普生權寧淑 金元連 八圓五十錢 水鐵金在錄外三十二名 五圓 水鐵郵便局 二圓 十五錢 豐基公普郭柄斗 二圓 二十五錢 安定公普校生徒職員一同 二十圓五錢 順興青橋消易消防組 金斗萬 外四十七名 二圓 丹山公普職員生徒一同 二圓 榮州邑朴日成 三圓六十錢 金光道路人夫金周一外六十九名 十圓 梧雲簡易校千人針一枚 榮州公普校生 姜貞求 姜昌順 姜明玉

伊川基督教會 時局認識强調

【伊川】강원도이천군내 기독교회(基督敎會)에서는 지나사변발생이후 일반교도들에게 시국에대한 모든인식을 바로갓도록강조하고잇는일방 금번이천군속과 이천서사법주임을 초청하야 지난십오일밤 여덜시반부터 천례배당에서 목사백학신(白學信)씨사회하에 시국강연회를개최하고 일반교도들에게 시국인식에대한것을 강조하엿다는바 연제와연사는 다음과갓다

一、時局認識을正確히하자 伊川郡屬 朴潤根

一、支那事變에對한國民覺悟 伊川署司法主任 崔弘吉

洞里사람恐喝 三十圓을强奪

【伊川】무지한농민을 공갈하야 삼십원을빼서먹고 법의눈을피하야 도망을갓다가 경찰의눈에띄워 엄중한취조를마치고 검사국으로 송치되는사건이잇다 이천군방장면가하리(伊川郡方丈面佳下里)신대정이라는 신인(申X)은 금년봄에 동리 석중손(石仲孫)이가 자기의 도박상습을 경찰에 밀고하야 사람의 면예를 훼손하엿슬뿐만 아니라 고생을 시키는것이라 도박벌원을 내지안흐면 단연코 복수를한다고하므로 석중손이는 겁이나서 시정사정하야 도배원을주기로 게약서를 써서주고 얼마후에 현금사십원을 주엇는데 신인이는 도박전과어범으로 동리사람들에게도 그와가티 바지못하는 사람으로서 그와갓흔 이범한 행동을한것을 알게된 이천경찰서에서는 곳범인체포에로력한결과 지난팔일에 가려주재소원에게 체포되야 이래엄중한 조사를밧던바 지난십삼일 검사의수하게 철원검사분국으로 송치되엿다한다

北支方面에서 木材를大量注文

仁川材木商對策을講究

【仁川】지나사변이 돌발한지를 과수월간에 북지는벌서 치안(治安)이 안정되여 대량의건축용재목이 수출되는것은사실이나 그반면에 목재수입이 금지되여 인천의 당업자들은 목재기근을면치못하리라하며 인천재목상조합리사 고뢰미수(仁川材木商組合理事高瀨尾講)씨는 아래와가티말한다

북지의 치안확보와한가지 대량의목재는 수출되나 목재수입에 금지로인하야 기근을예상케됩니다 우리는 국책에순응하야 생업보국에 돌진하려하며 내지에잇서서는 원목(原木)을옮은 면치못할것갓습니다 운운

秋蠶共販開始

【楊州】양주군내의 금년도추잠소립(掃立)매수는 이천백오십칠매라는데 일기순조로 사육(飼育)성적이 량호하야 수견(收繭)예상고가 삼만이천키로나된다는데 지난십삼일부터 군내의정부(議政府) 금곡(金谷) 마석(磨石) 동두천(東豆川) 사개소에서 고치의 공동판매를 일제히시작하얏고 십오일 현재시세는다음과갓다

優等三圓六十八錢 特等三圓十八錢 一等三圓七錢 二等二圓七十六錢 三等二圓四十六錢 四等二圓十五錢 五等一圓八十四錢 中一圓五十二錢 下八十三錢 玉上一圓三十錢 玉下一圓十錢

北支에直輸出하는 乾蝦도口錢徵收

京畿道漁業組合의不當處事에 仁川漁民間非難漸高

【仁川】인천근해의 사천여어민의 어획향상, 판로확장이란 미명을 띄이고 개인의 영업권까지 양수하여가면서 또는 일부의 물평도 도외시하며 창립된 경기도어업조합은 작년도에 창립된이래 조합의 취급인부와 매매게원등이 익숙치 못하야 물편한점이 한두가지 아니라 할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근일에 일으러서는 조합으로운반하야매도하는것은 조합에서구전(口錢)을밧는것이 당연하거니와 경성방면에 어상에서 직송하는어물에까지 구전을바듬뿐아니라 심지어 건하(乾蝦)에대하야 매수인이지나인 오인밧게업는관계로 이를입찰(入札)제로 매매하야오든바 금번은 전기지나상인이입을모아 시가십오원가는것을 불과 사오원에 입찰하고 잇스나 조합으로서는 이를 제지할 아모러한 방법도 업슴으로 어민들은 이를 대련(大連)으로직수출하얏든바 의외에도 이를십삼원오십전에 매도하얏다 이에활기를어든어민은 전자에 매도치못하고 조합창고에 보관하얏든 건하까지전부직수출하고자하얏은데 조합에서는 무리하게도 창고료는귀냥 최초에 입찰하얏든가격에대한 구전을 바듬으로 어민의 물평은물론 일반사회에서도 이는 어민의 편익보다는 북지무역에지장을일으키고잇는 중대문제라하야 자못 중대문제화하리라한다

穀類豫買者絶影 農村엔現金飢饉

豐年들어도憂鬱滋甚

【伊川】강원도이천군은 금년봄이래 우순풍조로 오곡이 풍등하야 사십년래에 처음되는 대풍으로 일반농민의 화희는 자못조되고잇섯는데 지나사변이후모든 경제상원활치못한 점이 만흘뿐만아니라 례년이때에는밥서부터 콩(大豆) 베(正租)등의 매매예약으로 농촌활기는 추수기전부터 잇섯스나 금번은 아직까지 매매예약에 대한것은도 시볼수가업슬뿐만아니라 곡가가 점점떠러저서 모든경제상 농가에서는 벼나 콩기타 곡식으로서 유일한 생산을하든것이 풍년이든 금년에는 도로혀 우울한빗이 떠돌고잇다한다 그리하야 현금(現金)을 만저볼수업는 농촌에서는 금융이두색되여 질식할형편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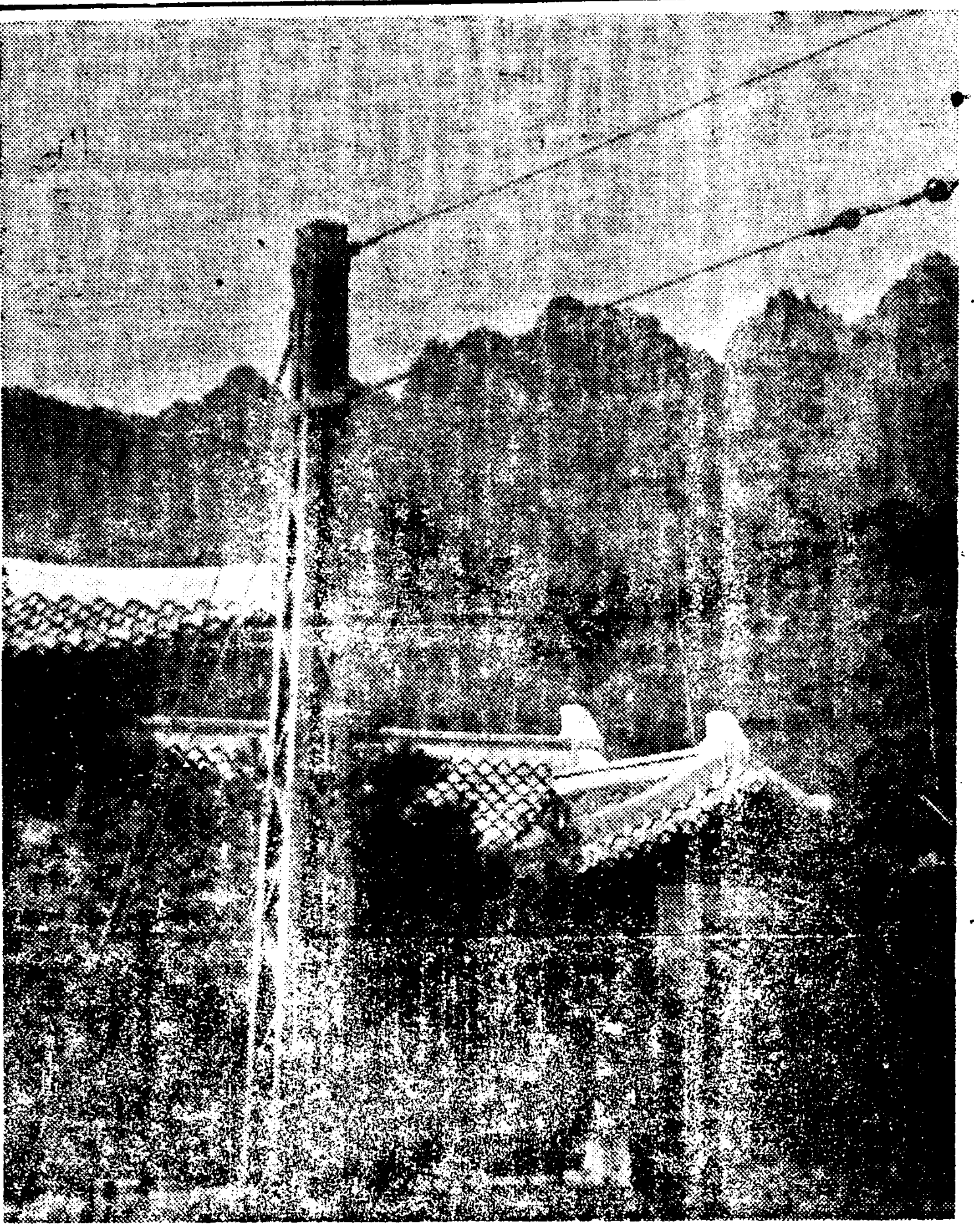
滿洲事變記念祭 春川神社서擧行

【春川】아직도 기억에 새로운 만주사변(滿洲事變)의 폭발일인 구월십팔일을당하야 춘천읍에서는 만주사변제륙회기념제를 십팔일오전열시부터 춘천신사(春川神社)에서 거행하게되엿다고한다

三萬圓의工費로 春川神社를修理

그中萬圓은京春鐵道에서寄附 二萬圓은道民에게徵收

【春川】약진춘천(春川)은 물질 양방면으로 획기적 발전을보이고잇는데, 금번 춘천에서는 삼만원의예산으로 춘천신사(春川



가을의金剛山 (長安寺驛에서)

行旅病者救護所 江原道內에設置

【春川】오늘은동으로 래일은서 정처업시 류랑의생활을하다가 흥은길가에서 흥은[illegible]에서 인생의최후를마치는 가이업슨인간이 강원도내에서 매년오백여명에달하는현상인데 이소위행려병사를하는 사람들을위하야 행려인구호소를 춘천(春川)강릉(江陵)고성(高城)철원(鐵原)원주(原州)등 오개소가잇는데 도세진전에딸아 아프로 구호소(救護所)를 증설할필요가잇다하야 게획중이며 금번춘천구호소에이백오십원 강릉구호소에백원 고성구호소에백원 각각국고보조의혜택을입에게되어 이로써 내용을 일층확충하리라고한다

求職女에게暴行 暴行男에게恐喝

기는놈우에나는놈잇는格 惡男惡女仁川署에

【仁川】강간당한녀자를 자기동생으로 가장식히여 남자에게금전을편취하랴다가 남자와함께사기무고죄로 인천서에 체포된녀자가잇다 일정한 주소가업시 남자에게서 저남자에게로 떠도라다니는 정울순(丁乙順)(三七)은 부내룡강정(龍岡町)모여관에서 묘령녀자가 강간을당하고 누어잇다는 풍문을듯고 전기여관을차저갓는바 과연일정한주소가업시 식모로써 표랑하든리군자(李君子)(二七)라는 처녀가잇슴으로 그경위를 뭇어보앗든바 그는지난오일 인천으로와서 룡강정(龍岡町)김성대(金成大)의 소개소에와 직업을의뢰하고 잇슬지음에 해주군송림면연평리(海州郡松林面延坪里)에주점하는 김일봉(金日奉)(三〇)이가 자기는 연평도에서 건하(乾蝦)공장을 경영하고잇스니 너를사무원으로 채용하겟다함으로 그남자의묵고잇는여관에 이삼일간 류하고잇다가 남자를따라가랴고 하얏스나 맛참내그날저녁에 그는강제로써 가나의동생이라자칭하고 그러면네 고발하면 남자에게서 금전을편취할수잇다고꾀이여 맛참내허위고소를 제기한것이 피차에근본이란로되야 돈먹으랴든 녀자와뜻먹가한남자는 인천서에 인치되얏다하며 남자는 전기 리군자외에 서경정(西京町)림일순(林一順)(二〇)이라는 녀자를동업중임에당하야 한수단으로 폭행한사실이잇다한다 이와가티 의지업는녀자를중간에노코 악남악녀의죄악이 탄로된사실이라한다

十五年服役코 또逮捕된窃盜

【仁川】십칠세로부터 삼십삼세에일으기까지 십오년간 감옥생활이 부족함인지 생활에위협을받음인지 또다시 범행을하야 원대『짠발짠』이잇다 이는경북칠곡군북삼면어로동(慶北漆谷郡北三面漁魯洞)김룡수(金龍壽)(三二)(一名花村幸吉)은 십칠세때에 병고현(兵庫縣)으로 건너가직업을 구하얏스나 뜻과갓지못하야 절도를 감행한것이 맛참내 전과자의 누명을 엇게되야 그후로는 로동이나마 여의치 못하므로 전후 오회의 범죄로 전과오범이 되엿다가 얼마전 인천(仁川)으로 와서 또다시 직업을 구하얏스나 그역 여의치못하게되매 또다시 룡강정(龍岡町)천정(淺町)유희장에서 스리를 감행하려다가 경찰의 손에잡힌 시대가 나흔 불운아엿다한다

時局認識의徹底로 事故도매우減少

永登浦署非常緊張

【永登浦】북지사변이 발발하기전후하야 시내영등포경찰서에는 판본고등주임(坂本高等主任)을제한 남어지다른중요간부는 모다갈리여 신해공서장(新海公署長) 사법주임리중수(司法主任李仲秀) 고등주임판본성행(高等主任坂本盛行)경무주임중도용부(警務主任中島勇夫)외사주임좌야정의(外事主任佐野正義)제씨의 신진용으로 전임자의 치적을혁되히하여서는 면목상문제라고 신진기예의 의기로써 각각 중임에당하야 신해공서장의절대명랑화에 헌신적활약을 계속하고잇는터인데 더욱이 현하시국은 북지사변의 불확대주의로부터 대지응징으로 전화하야 전도 예단을허락지안는 초비상시에잇서서 총후에잇는 국민의적성이 크게기대되는 이때인만큼 경찰의책무가 더욱중대하야 류언비어의 취체는물론 노동시장을 바라고각지에서 모여드는노동자들의 동정사찰기타 일반적 경찰사고의 미연방지에 힘쓰는 일방 신해공서장은 기회잇슬적마다 각공장을순회하야 종업원 직공들에게 대한 시국인식의철저를 기케하야 생업보국의 실을 거두도록 선도지시하는동시 견서원이 조곰도 어지러움이는 통제하에 주야경영 불면불휴의활동을 하고잇는터임으로 최근에는 범죄건수가무면히감소되엿다한다

〓長篇小說〓 花冠 【51】

李泰俊 作 金奎澤 畵

생각만흔가을(四)

사흘 뒤이다. 동옥은 저녁때 경성역에 나리엇다. 집에는 어머님만 모서다 드리고 신도고르지 안코 그길로 계동(桂洞)에잇는 정히네집으로 차저갓다.

정히는 잇섯다. 알코난 사람처럼 꺼시시해진 얼굴이, 여러해만이여서 잘 몰라보는것처럼 마조 나오기는 하나 무슨 말을해야 조흘지 몰라한다. 만나기만하면 빰이라도 치고십던 황정히, 정작 만나고나니 가엽슨생각부터난다.

『나 너 차저 또 송전 갓섯서……』

동옥이가 먼저 말하엿다.

『그래?……』

하기만 하고 [illegible]는 말은 하지 안는다.

『네방에 누구 엇니?』

『아니』

『그럼 좀 드러가잣구나』

정히의 방으로 드러서자 동옥은 무엇보다 먼저 배일현의 편지를 꺼내 내여밀엇다.

『너 이 편지부터 보구 말해라』

『봐도 괜찬을거냐? 그이 글신데……』

『괜찬키보다 네가 봐야만 할거다 어쩌문 사람을 그러케 경솔하게 판단하니?』

정히는 잠작고 편지를 집는다. 동옥은 부채를 집어 부치며 발-박그로 뜰안을 내여다본다. 분에 피인 옥잠화가 벌서 반넘어 이울엇다. 석류나무도 섯다. 석류도 한편 빰이 붉웃붉웃 익어간다. 어느틈에 가을은 한그릇 분후에도 풍기기 시작한다. 정히는 한장 두장넘기며 편지를 읽는다. 편지 넘기는 소리가 끄치엇슬때다. 동옥은 정히를 돌아보앗다.

『다 읽엇니?』

『……』

정히는 꿈을 깨이듯 충혈된 눈만 끔벅인다.

『내가 네한테 미리 알리지안은건……』

『배가 나뿐 사람인건 나두알어……』

『혹시 그이가 마음을 돌리면 넌 모르고 잇슨편이 나올거루 생각햇기 때문이야』

하고 동옥은 황재하에게 보다 더 자서하게 배일현이가 삼방에 왓던것, 석왕사에 정히가 와잇다고 속이엇, 석왕사 산길에서 긴동안 대화한것, 밤차로 돌아온것, 모다 이야기햇다. 정히는 울기만한다.

『아모런 난 여간 미안하지 안타 내가 괘니 너헌테 가더랫서……』

『뭘…… 그런 사람한테 언젠 무슨 기회가 업겟니……차라리 하로라도 일직 온게 내겐 다행일지 몰으지』

하고 정히는 눈물을 씻는다

『너 그이 단념하니 그럼?』

『단념하지 안흐면 무슨 길이 잇서?』

『그래두……』

『……』

잠간 침묵이 지나간다.

『넌 그일 사랑하지 안니?』

『단념할테야』

『아니 글세 그일 넌 조와하지?』

『조와하길래 단념이란말 아니야? 조와하지 안흘거 가트면 단념여부가 업는것 아니야……』

『그리게 말이야 네가 그일정말 사랑하니까 그일 위해할수잇는데까진 힘써봐야올치안니?』

『……』

『좀 네가 편대하렴?』

『난 지금 아무것도 생각할수업서…… 가 다구……넌 오해치 말게 인전……』

『……』

『이편질 너면 그이가 널 사랑하지 못하는게 내가 그일사랑하지 못하는것보다 더불행할것 갓지안어?……너 내생각 말구 그이가 조컨 그일 사랑해줄렴……』

『뭐시?』

동옥은 빨근해진다.

『넌 오해하지 안흘게……』

『얘? 정히야? 그게 말이나? 그게 아직도 날 의심하는말 아니냐?』

정히는 고개만 아니라고 흔들면서 방바닥에 쓰러지고만다

男女 淋疾 蔘茸五淋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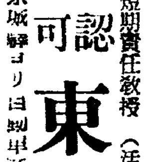
懸賞廣告 小女의父母現住所를左記에依하야 小女에게알녀주시는이에게는 金五十圓을드리겟나이다 …… 本籍 …… 現住 …… 長女 韓五突

醫學博士 方斗翰 方小兒科醫院 京城府齋洞四街里 電光一二五二番

新築家屋賣買開始 重要階級人士의文化住宅이大部分櫻ヶ丘를占領함을따라交通道路下水溝等衛生施設이充分한模範住宅地입니다 ▲純朝鮮式瓦家四間으로부터十餘間까지有하며價格은一間一百六十圓式 京城府櫻ヶ丘獎忠壇뻐스線終點問議處 京城鍾路永保빌딩三階 朝鮮建築社 電話光化門一三四九

唐版書籍 오직老中與各種珍書唐版書籍을購讀하시려는분은必히三錢郵票同封하야本堂의唐版書目錄을請求하시오 安東縣官電街十三號 文錢堂

桃屋의桃의罐詰 品質第一等 生것보다맛잇는 白桃、黃桃 各食料品店에잇소



朝報案內

集金係募集 廿五才迄希望者ハ履歷書携帶本人來談アレ但シ保證金三百圓及ビ市內確實ナル保證人二名ヲ要ス面會時間午後一時ヨリ三時マデ 京城本町二丁目 株式會社村木時計店京城出張所

ホーロー看板 鑄物ホーロー 寸法通知次第見積書直送 永登浦 極光工業 電話(長)五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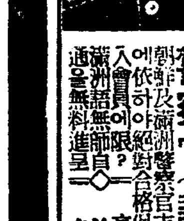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當社專務取締役淺野正之助殿兼ねて病氣中の處養生不相叶本日午前十時三十分逝去致され候に付此段謹告仕候

追而十九日午後三時半自宅出棺永樂町西本願寺に於て告別式執行仕候

昭和十二年九月十七日 京城府旭町一丁目二四

樂天堂製藥株式會社



警察官(講義合部全書) 鮮滿警察學會

短期責任教授 認可 東洋自動車講習所 (活動寫眞應用) 就職絶對保證新學則進呈(三錢切手要)

皮膚 チャージ 차ー지 ◎顏面手足거츠름指間무좀股間습증 ◎근질근질한皮膚病에꼭한번만쓰면 영낙업시完治됨니다 定價 卅錢、五十錢、一圓 二圓、三圓、五圓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

只今 로ー스仁丹 十錢包(百五十粒)에 美麗한 琥珀容器 빠짐업시添附

消化와 消毒과 口香의 常用藥 仁丹

昭和의常識

經濟解說

獨逸經濟統制 ①

一九三七年三月三十一日伯林으로부터의AP電報는如左히報하얏다『獨逸政府는 國民에對하야 正統派資本主義의 概念과는 根本的으로 다른새財産權의 概念을 興하려고 鋭意準備中이다 目下獨逸中의 新民事法典中에는 抽象的 財産權을 規定할必要도, 餘地도업슬것이다』

이는 實際에잇서서 무엇을 意味하는가, 今後에 기달릴수밧게업스나 어떠튼지 一九三三年以來 徐徐히 發展해온것과 根本的으로 달른것은아니다 모든 角度에서보아 今日의獨逸은資本主義國家는아니다 獨逸의『資本主義體制』는 國家社會主義體制로 轉換되엿다 國家社會主義體制는 資本主義經濟와는 全然別個의經濟를 支柱로하고 또資本主義經濟를 支配하는 內在法則과는 全然別個의 法則에 從한다는것은 一九三六年一月二十八日『나치스』黨新聞部長『데이-트릿히』博士가 演說한바이다

×

過去數年間『파시스트』는『파시즘』은『콤뮤니즘』에對한防壁이다『콤뮤니즘』撲滅의 特効藥이다』라고宣傳하얏는데 一方『콤뮤니스트』도『파시즘』이『콤뮤니즘』의敵이며 反對物인것을暴露하얏다. 實際『나치즘』과『콤뮤니즘』처럼『이데올로기-』及實踐에잇서서 互相對立되는것가티 생각되면서 實際는 本質的으로 近似한 두社會的 經濟的制度는 업슬것이엇다 獨逸版『파시즘』과 伊太利版『파시즘』의 相違는本實的이 아니고 程度의 問題이다 就中『아우타르키』라는 共同의目的을 가진點으로 兩者의 同一性은 더욱 明瞭하여진다『아우타르키』樹立이라는 點으로보면 伊太利에 比하야 훨신 强力的工業國인 獨逸이 伊太利를『리-드』한은勿論이다 伊太利는 獨逸의 模倣을 하는데不過하다 伊太利는 最古의『파시스트』國家로서 獨逸에對하야 獨裁政治의 行政的『테크닉』을가르킨데不過할 뿐이다

×

蘇聯邦內部의發展으로 獨逸的發展을推論하고 或은反對로 獨逸에잇서서의 發展으로 蘇聯的發展을 推理하는境遇에잇서『나치스』政權이 歷史는아직 四年이되엿 反하야 蘇聯政權은 이미二十年의 歷史를 가진것을 考慮하지안흐면안되다 따라서 한政權에對하야그 初期의制度나政策을 그後政權이 進步된時代의 制度나政策과 比較함은 無益한일이다 蘇聯에잇서서의 社會的經濟的機構의變化 例컨데 레-닌의『新經濟政策』과 現在의『第二次五個年計畫』의 사이의 變化는 蘇聯의『쓰아-』經濟에서『新經濟政策』까지의 變化보다 클이다.

따라서問題는 今日獨逸에는 所謂資本主義의 體制의 特徵이 어느程度남어잇는가 또어느程度로 今後存續될것인가하는데잇다 于先明瞭하게 對答할수잇는것은 生産手段의 私有는 今日獨逸에잇서서 아직 認容되고잇는것이다 이는 蘇聯에잇서서도 同樣이엇다 卽 壓倒的으로 農業國인 蘇聯에잇서서는『와베-트』政權成立後 數年農業이 集團化되야『富農』이 一掃되기까지 生産手段의 私有는容許되엇든것이다 獨逸에잇서서 生産手段의 私有라는것은 法律的槪念으로서도 深大한 變化를밧지안흐면 안되엇다는것은 이미獨逸政府가 言明한바이다『나치즘』의『이데올로기-』를熟知할者는 政府가『變하겟다』고 言明하면 그는 根本的變化를 意味하라는것을 조금도 疑心하지안는다 그러나 獨逸에잇서서 私有財産은 이미 오래以前에 實體를잃엇고 다만法律上에 남어잇는것이다 獨逸의 工業家가 今日에 잇서生産手段과 生産物을 支配하고잇지안코 勞働者는 勞働條件을 農民이農産物을 商人이商品의 取扱及 그賣買價格을銀行家가『크레지트』의 設定乃至金融을 自由로行하지못하는것과 全然同一하다 모든것이 國家의 完全한 統制下에잇다 그리고 國家의政策은 一般的으로는 그政治的經濟的 目的의 必要에依하야 特殊的으로는『第二次四個年計畫』에依하야 決定된다

以下事實로 獨逸經濟統制를 順次살펴보자 (계속)

當面한重大問題 豊年飢饉憂慮中

米穀資金의融通難과船便輸送不圓滑로

愁心裡의秋收期農村

雨順風調하야 二千四、五百萬石의 大豊作(當調査方式에依하야도 一千九百萬石以上으로 昭和五年의 大豊과匹敵)이 豫想되나 今年의 事情은 豊年飢饉의 念慮가 濃厚하니 그 原因은

一、金融難으로 米穀資金의 不圓滑 二、輸送不圓滑

에잇다。이에對하야、總督府를爲始하야 朝鮮은 米穀에 經濟根幹이 잇는만큼 各方面에서 注目코잇는데 萬一 이두가지가 圓滑히되지안는다면 豊年은 되엇스나 팔수도업고 移出도 못하야 實로 적지안은 事態를 招致할것으로서 이에 樂悲兩樣의 觀測을 들어보면 如左하다

金融 樂觀說不無나 前途窮屈難免

今年米收穫을 二千四百萬石으로잡으면 그總移出力은 一千萬石을 不下할것인데 小農層의至正까지에 닥처오는빗때문에 換金을急히하지안을수업는만큼 그販賣高는 約五百萬石에 達할豫測이며 平均價石二十七圓을잡어도 一億三千萬圓의 資金이必要한데 今年은 大藏省의 低資三千萬圓以外는 殖銀、東拓等의自己資金은 決코期待할수업는實情에잇다 總督府에서는 이米穀資金問題를 重視하고 林財務局長이 東京에가서 資金供給에對하야 交涉햇스나 大藏省에서快諾이업고 山地理財課長이繼續하야 折衝한다하나 殖銀、東拓의自己資金은 어찌할수업서 窮屈하겟고 鮮銀의 金融積極策도期待키 어려운實情이다

그러나 十五日에열닌 米穀研究會懇談會席上에서 横瀨鮮銀理事는 米穀資金에對한 樂觀的말을하얏는데 果然얼마나 圓滑할수잇슬는지?

輸送 出荷統制하면 不圓滑緩和?

다음 輸送問題에잇서서는船腹不足에依한 移出不振이 걱정되는터인데 現在朝鮮에의 各船會社의 配船은 事變前보다 二割五分의 減少를 招來하고 이대로가면 秋收期의 船腹不足이 深刻케되어 朝鮮米의 內地移出이 憂慮할 事態에 陷할것이 明白한데 이런 悲觀論에 對하야 最近은 輸送關係가 걱정업다는 樂觀論도 不無하다

從來의 朝鮮米積取實情은 船腹이 潤澤할 境遇에도 移出業者 其他關係로 一船滿腹의 狀態는적고 船腹利用이 非常히 不經濟인 感이잇섯스니 이것을 効果的으로 利用하면 반드시 船腹不足에 依한 輸送能力不足은 補할수잇다는 論이 船會社方面에 잇다 卽 이것을 理想的으로 實現하기 爲하야서는 結局 出荷統制를 行할 必要가생기며 移出港의 米穀業者의 自制에 依하야 出荷統制組合設置가 此際 가장 理想的打開策이라한다

그러나 이런 船會社樂觀論가티 出荷統制로 輸送不圓滑을 얼마나 補할수잇슬는지?

米價 全國米界視聽 朝鮮米로集中

二百二十日颱風에依하야 開花期인中國四國方面을 비롯하야北陸路其他의 被害가相當하지만內地의 米作은大豊作無疑로 보는데 內地新米는 買上期待外에全販賣投賣防止運動도잇서 秋收期低落이別無하리라보니 가장注目하고잇는것은 朝鮮米에 對한憂慮로서 卽朝鮮農村이 金融難輸送難으로 秋落을演케되면이것이 動機가되어 全國米價를 崩落에導케되리라하야 全國米界의視聽이 朝鮮米動向에 集中되어잇다

鮮銀券增發

鮮銀券發行高는 繼續하야 漸增되어 十六日採越은 一億六千九百七十四萬五千圓에達하야 前年同日에比하면 二千六百五十三萬五千圓의 增加이오 增發傾向이 顯著하다 그原因은

一、朝鮮內의 通貨膨脹

一、北朝鮮의增發을擧하나 鮮銀當局에서도 其中어떤것의 增加가큰것이지는 全然알수업다한다 卽北支關係는相當히크다하나 現地의 支店帳面은豫想以上으로적고 大連과本店의分의 流出이 잇는듯하야 北支流通額推定은 알수업다한다

農器具購入斡旋 朝鮮農會에서統制

朝鮮農會에서는 十七日農器具共同購入斡旋事務協議會를 開하얏는데 右는 從來各郡島農會에서 個個로斡旋中이던것을 朝鮮農會가 統制하자는것을 事務協議會後 今秋부터 實施할方針이다 農器具의 昭和十一年移入額은一千六十五萬三千圓으로 郡島農會에서 斡旋한것은 二十三萬二千圓 이에對한 政府補助는 五萬一千圓이엇다한다

移入輸送 大體로復舊 但滯貨一掃至難

鐵道의輸送力은 漸次恢復되는中으로 大體中旬現在로는 對內地連絡輸送(主로移入)은 平時輸送力에還元하고 各港揚雜貨其他輸送도 大概復舊되엇다 滯貨가 만어으든關係上 能力은 平時에回復되어도 若干不圓滑을 難免인一方 大量荷物인木材、세멘트、石炭等은 輸送全力이 發揮되어도 當分間은 滯貨一掃가 至難한形勢라한다

夏秋蠶二回豫想 二十七萬四千七百七十石 比前年實收七分二厘增

【農林局發表】九月十日現在本年度 夏秋蠶의 蠶兒發育狀況은全朝鮮이 良好하고 桑葉은 平安南道의 過剩을 除하고 其他道는 過不足이엇섯다

收繭豫想額은 八百二十四萬三千二百三十瓩 (二十七萬四千七百七十四石)으로서 前年의同期實收額七百六十八萬八千八十一瓩(二十五萬六千一百六十九石)에 比하면 五十五萬五千百四十九瓩 (一萬八千五百五石)(七分二厘)의 增加이다

地方別로보면 減少된것은 咸鏡北道의 一割九分一厘 忠淸北道의 七分一厘 平安南道의 七分一厘 黃海道의 六厘로서 其他道는모다 增加되어 慶尙南道의 三割六分四厘가 最高를占하고 京畿道의 一割八分一厘 江原道의 一割七分七厘 全羅南道의 一割五分 忠淸南道의 一割一厘가 그다음이오 最低는 咸鏡南道의 一厘다

各道別로 詳記하면如左하다

道名	收繭豫想額(瓩)	比前年實數增減(△는減)瓩
京畿	五三八、〇三八	八三、八四九
忠北	四九五、七四三	△三七、九六一
忠南	六二六、〇〇〇	五七、七一八
全北	六二一、二一七	四四、三五一
全南	一、一九九、六三八	一五四、三六五
慶北	一、五〇〇、〇〇〇	二七九、四八四
慶南	四七五、五〇〇	一二八、九六〇
黃海	三〇四、二二五	△一、七七五
平南	四三八、八六〇	△三三、一九四
平北	六二七、〇〇〇	五、三八二
江原	八〇三、七四四	一三〇、七七五
咸南	六〇六、三三五	四〇六
咸北	六〇、〇〇〇	一四、一七一
合計	八、二四三、二三〇	五五五、一四九
	(二七四、七七四石)	(一八、五〇五石)

生產資金은 從前과不變 不動產貸出도한다 ◇…鮮銀、殖銀當局談

金融機關의 貸出警戒가 事實上 事業投資가 萎縮되는 傾向인데 이에 對하야 鮮銀及殖銀은 如左히말한다

一般資金難으로 金融機關에서 貸出引締가 宣傳되고 其結果一般事業投資가 萎縮되는傾向이 不少하다 이것은 財界의 全局으로보아 憂慮할일이다

不動產貸出도 決코 中止하고 잇는것이 아니다 投機的 不動產賣買의 資金은 中止하고 잇스나 生產力擴充에 充當할資金의 擔保物件으로서의 資金은 貸出코잇다 決코消極化한 것이아니다 退嬰的으로 落함은 極力避할것인즉 一般이誤解업기를바란다

東拓에簡保融資

東拓에서는 過般 신지케-트團으로부터 起債豫定三千八百萬圓의 半額削減을 受하야 新規投資計畫遂行上 憂慮되든바 同社에서는 最近簡保資金으로부터 資金取入을 計圖코 折衝中 約一千五百萬圓의 受入諒解가 成立된모양이다 簡保資金으로부터는 過般來 滿鐵이 一千萬圓을 取入하얏고 東拓에서는 資金計畫으로 六百萬圓의 諒解를 得하얏던것이 신지케-트團의 融資減으로 增額을 折衝하던것이 이增額取入이 成功하면 相當히 朝鮮內에도 好影響을 齎來하리라고 期待된다한다

產金買入鮮銀集中 民間業者不許? 但出張買入할地方業者는認可

朝鮮內의產金指定買入은 朝銀에限定되어잇는데 朝銀外의民間買入商은 目下總督府에申請中의 것이 九業者나되나 當局의方針은 從前의經驗其他經驗에鑑하야 慎重하고 結局都市의產金買入은 朝銀以外에는 認可치안흘것갓다 그리고 朝鮮의特殊事情에鑑하야 地方에서 群小產金業者에게對한 出張買入을行할 地方買入業者를 認可할듯한데 產金은 朝銀集中方針이明白하다

今日財界 十七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先限 …
大阪期米先限 …
京城 一百키로 …
正租(仁川)一等 …
一斤價三等 …
고무神戶現 …

◆株 (單位十錢)
朝新 … 東新 … 鐘新 …
◆商品 (先限單位錢)
綿糸 … 綿花 … 人絹 … 砂糖 …

鮮銀金買入所 한두곳新設!

新產金令의 實施에 依하야 鮮銀以外의 從來의地金買入業者는此際自然淘汰케될터인데이結果鮮銀은九百九十%의靑金의 强制買入과 從來와가티 粗金買入을하고잇다 그럼으로鮮銀에의 地金持込은以前보다도 口數가非常히 激增되어 現在本店의 分析設備만으로는안될으로 이것을增設하는同時에 受渡者의 便宜를圖키 爲하야平壤大邱等全朝鮮에 一二個所를限하야買入所를 設置코저目下準備中이라한다

國債 先高人氣 續進

【東京電話同盟】金融情勢의前途樂觀人氣로 續續하야 先高人氣가 根强하고 前日一押의뒤이라 도買氣가加하야 內地債五錢乃至十五錢上進 法貨도十五錢買追 米貨도六分半共히 三圓續進이나 取引은 意外로閑散이엇다

重油도値上 十七日부터

朝鮮內의 까소린値上은 內地에追隨하야 一까론八錢(新基準六十九錢)을 引上하야 十六日부터 實施하얏는데 十七日부터 重油에 就하야서도 噸三圓五十錢의 値上을 一齊히 實施하게되엿다 이것은 原油高와 항카-레-트昂騰에 依한것이다

今日의市勢【十七日】

株式 高價揉合 强健

前場頭重 昨後場伸惱大引後今朝는 戰局이去益 有利展開를好感하야 東新七十錢高의 百四十一圓六十錢, 鐘新三圓三十錢高의 二百三十四圓九十錢, 大新三十錢高의 七十七圓, 朝新不變의 二十九圓四十錢, 日產七十錢高의 六十七圓五十錢으로 奔騰寄付後 高價買警戒와 利喰急으로다시 軟弱하야 結局東新百四十圓二十錢, 鐘新二百三十二圓八十錢, 朝新二十九圓三十錢, 日產六十七圓二十錢이엇다

後場强堅 後場은 東新八十錢高의 百四十一圓 鐘新一圓三十錢高의 二百三十四圓十錢으로 反撥寄付後 午後三時五分頃 東新百四十圓九十錢 鐘新二百三十三圓五十錢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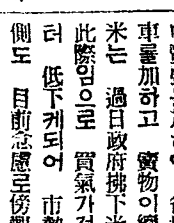
依然强健商情

北支、上海、南支에잇서서의戰局의 全面的好轉과 金融緩慢을 背景으로한市勢는 週初以來押目待無押目의漸騰으로轉하야 主力株中心으로 奔騰을보아 東新은百四十一、二圓臺로 鐘新은二百三十四、五圓臺로올너 相當히 단단한맛이잇스나 決定的戰捷이잇기까지는 高價買를 警戒하는人氣가 支配하야 大衆의 積極買는 나타나지안코 穩健한商狀인데 此際相當한押目을 지어가지고올는것이 도리어 市勢의壽命을 길게하는것이겟스나市勢그것은 押目을보이지안코 단단함으로 今後가 注目되엇다

投資物色買

大日本證券投資會社以下의 投資信託은 別物이어서 投資會社는 出動의目的이 株式市場의過度한 崩落을 防止하는데잇슴으로 投資物을 物色하는데잇서서도 市勢의調節에 重點을두는터이나 個人으로서의 投資物色買는 專혀 採算과 業態를본으로 더욱要領이잇다 市場의有力者間에는이번의 氣崩으로보는사람이 만흐므로 지내친氣配가 經過한後는 거의 念慮가업시 物色買를할수가잇다 그리고 市場面에나타난 投機性의買人氣보다도 보히지안는投資的物色買에 힘이잇는것가티보인다

市場六感



㊑…當地는 逆日步로鐘新東新의 上期買流行▲北支와上海의 決定的戰捷이 目前에迫到하야 押目待買物이 만히나잇서야 三分一押十圓低는百圓高에對한 三分一押이 안떠려진다▲鐘新卅오겟고 軟派의 踏場이되겟는데 三分一押도업시『콩크리-트』가 티단단▲올는고는揉合 코는再騰하는市勢는 罫線家도意外視▲戰勝市勢가아페칠것이 合으로 市勢가이러케堅固한모양▲投資團에依하야 下値는完全히制約되더이라 買方의戰線整備가注目꺼리

㊐…八月한가위날도 래일모래 新穀으로풍풍 市場의로나타나는光景▲秋日和도 조커니와 豐作의氣分도濃厚, 그러나 돈이귀해서 사람마다돈▲明年一月까지의 軍事豫算을 編成한二十億圓은 結局民間으로 떠러질돈이것마는 아직은 好感이업는걸▲二十億圓이란 그紙貨뭉치가 東京大阪大工場을 거처서나올가 何如間 軍需『이불레』는 엇지안흘더이지▲아무리豐作이라하지마는 政府米의 大量買上이 잇스니 民間米는 昨年이나 今年이나 別差異가업슬모양 (韓山)

期米 廿八圓割 不勢

前場八圓割 今朝는 晴天으로 阪地先限二十圓九十五錢인 二十四丁의突落을擲하고中은八圓九十二錢이十八丁低로 先限은二十七圓九十七錢인 十三丁低로 場을 始한後 阪地一圓〇五錢까지 昂騰하엿다 三十圓臺로 反落하는 을떨어 三節二十八圓으로 七圓九十三錢까지 下押하더니 九十五錢으로 九十二錢에 弱하고 阪止三十圓九十八錢을듯고 九十三錢에 止場하다

後場下澁 後場은 二十七圓八十八錢의 五丁低로寄付後二節五十五錢 四節九十三錢 五節九十一錢으로 下澁이엇다

雙方의理想戰

接近當地正米市場에서 流行되는新米의 先約正租一斤七錢五六厘로 目標로 換算하면 玄米로의二十七圓五、六十錢에 該當할모양이므로 昨今先限二十八圓臺는四、五十錢이나 놉혼셈이다 그래서 軟派는 이러한 採算을보고서 先限二十八圓臺는 絶好의賣場所라하야 賣繫不怠하는 光景인데 萬一策戰을 變치안코最後終幕에 들어가서 渡米를斷行하는때는 金融梗塞으로 買方의資金이 如意치못하야 畢竟投賣하지안흘가한 理想的方針일에 戰線을 固守하는中이며 硬派는此에 反하야 아무리 豐作이라할지라도 政府米五、六百萬石買上은 必然의 事實일것이며 民間에서는 此等買上과 又는 軍需『이부레』景氣의 到來잇슬것을 豫想하고 더욱實情을모양인데 秋派의所期와갓하 七錢五、六厘에 實勢裡지가 問題이다 新米穀年度의 正租市勢는 一斤八錢以下에는 低落되지안흐리라는理想으로 또한 作戰不怠하고잇다 今後戰의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中	限	◆買方
[illegible]				

朝鮮米前途觀 雙方見解區區

朝鮮의 今年米作은 全鮮農商一部地方의 旱害等을 除하고는 無比의 豐作으로 昭和五年의 豐作에 못지안흘모양이다 그러면압흐로 朝鮮의 米價가如何히展開될것인가 雙方의主張하는바에依하면 軟派는 日瑞壞期의 驚沼不安을 憂慮하여왓스나 九月一日殘存米는 百十萬餘石으로 來米穀年度의 持越은 四十七萬石이로보이니 在米不足云云은 一杞憂에지나지못하엿고 正租市勢에威脅을서부터出廻되어 豐作인 데다가 金融이梗塞하고 兼하야 船舶의 不足으로 移出力이 減退될傾向이 不無한즉 米價의低落은 必然의勢라고 하며 硬派는 日鮮의 豐作은 否定하지안흐나 日本內地米作은 過般의 颱風被害가 甚大하야 七千萬石豫想說은 烏有에歸하고 依然 六千六七百萬石일수잇거니와 五十四億圓에 達하는 膨大한豫算을보고서 諸物價의騰貴는 否定하지못할것도事實인즉 米價의將來는 更히 低落하지못할것을 豫測할수잇다는等 雙方의見解가 區區不一하다

正米 過買反動 下落

京城惡化 各地期米는買過의反動低로 地滿人氣도 端境市勢出廻의 感이잇서 新米氣分으로 轉化하기때문에 市中實物山積市勢도 三十錢가량 低下되야買方의必需小口買가잇슬뿐이다

仁川賣崩 近鄉으로부터의豐作에놀리어나오는 實物로 市中實勢를加하야 各地期米低에拍車를加하고 實物이續出하야 猶米는 過日政府拂下米로 滿腹의此際임으로 買氣가적고 猶米부터 低下케되어 市勢下押、精米側도 目前念慮로傍觀하고 買入氣로 終始市勢三四十錢가량下落

釜山保合 新米出廻待의此際 今朝期米下放으로 依然 買氣不振이며 精米側의 消極買敷見으로 市勢도 前價同樣으로保合이다 穀良三等三一、〇〇 四等三一、七〇 銀坊主三等三一、一〇 四等三一、九〇 多摩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三〇 一等白米四一、三九〇 ㉑一三、七〇

大邱不變 定期軟調와 實需不振의 軟材로 買氣萎縮되엇는데 어떠튼實物薄으로 所持側이 一向不讓하기때문에 市勢도 前價同樣으로保合이다 四等三一、八〇 一等白米一三、八五 …

木浦保合 出廻薄의深刻化로 商談도杜絶된現狀으로 雙方氣迷이어서 繼續하야 閑散市場이다 ㊐三一、〇〇 三一、七〇 一等白米一三、五五

群山軟調 日本內地不買로 人氣低迷의 此際今朝定期落調로 市勢도十錢低의 軟調이다 ㊃三二五〇 三一、三〇 一等白米一四〇四

海外經濟 十六日

倫敦金塊 七磅〇志五片
倫敦銀塊 一九片
紐育銀塊 四四仙
…

銀行券 十六日

◆朝鮮銀行券
正貨準備 …
保證準備 …
◆日本銀行券 …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大阪金利

對外爲替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正租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京城纖維製品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麴油粕·麥粉

◆阪神麴油
◆日本麥粉市勢

株式

◆朝取短期
◆短期主要取組高
◆東京短期
◆東京現株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朝取短期賣買高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釜山期米
◆大邱期米
◆群山期米
◆大阪期米
◆木浦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京城物價 (十七日)

[illegible]

砂糖 生糸 人絹 棉花 綿糸

◆大阪砂糖 ◆東京砂糖 ◆橫濱生糸 ◆各地人絹 ◆大阪棉花 ◆大阪綿糸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期米 大 仁川海岸町

益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康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